

공기업론을 통한 자소서 핵심공략 / NCS 블라인드 채용완벽대비

해커스 스펙을 뒤.잡.는

NCS

자소서

NCS? 블라인드채용? 경력기술서?
“공기업 자소서! 어려운 만큼 전문적대비가 필요합니다”

2015-2016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초빙강사
윤종혁 선생님



해커스
스펙을 뒤집는

NCS
자소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NCS가 발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점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기소개서를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스스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CS 자기소개서는 많은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 실제 자소서를 쓸 때의 경험은 학교에서 한 팀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정도이다. 더 나아가다면 공모전에 참여했거나 인턴을 한 정도가 다인 것이다. 결국 NCS 자소서에서 원하는 것은 본인의 가치관을 담아내고,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접근하는 방법과 자소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자소서란, 항목에 맞춰 쓰는 제한된 글쓰기를 말한다.** 제한된 글쓰기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먼저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분석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다. 자소서를 기업별로 보게 되면 늘 변화하는 자소서 항목 때문에 곤란해지기 일수이다. 그러므로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자소서란, 더 나아가 본인이 한 경험을 필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자신이 한 경험을 왜 한 것이며,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위 한 것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를 살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 두 번째는

자신이 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자소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자소서의 원 - 소스를 만드는 작업이다. 한 번에 생각해서 한 번에 쓰는 글은 없다. 원-소스를 얼마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소서란, **자신의 가치관과 직업관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의 사업영역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해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업영역에 대해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집필해 놓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영역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여 공기기업의 홈페이지를 분석한다면 좀 더 디테일한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능력은 바로 글쓰기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A.I가 우리의 산업을 이끌고 간다고 하지만 글을 쓰는 능력을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하다. 자소서는 결국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기초되는 능력을 기르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비단 자소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글을 쓰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래를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력

- 2년 연속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NCS 기초능력검사 초빙강사(2015,2016)
- 해커스잡 공기업 전임 교수
- 성균관대, 한양대, 인하대, 이화여대, 홍익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부산대, 경북대, 제주대, 한국기술대학교, 목포대 등 전국 30개 이상 대학 공기업 강의 진행
- 우리교재명, 공기업 가이드북, 공기업 논술 등 공기업 관련 저서 다수
- 공기업 취업컨설팅 10년 이상 진행
- 前 공기업 외면접관(한국전력, 한수원)
- 前 비상취업 아카데미 취업부문 교수팀 팀장
- 前 대기업 신입사원 교육 (S기업, G기업)



임종혁 선생님

해커스 스펙을 뒤.집.는

**블라인드 채용, NO 스펙, 최대규모채용
달콤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공기업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채용환경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기업 외부면접관, 공기업 강의 14년...
공기업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한
윤종혁 선생님의 공기업 NCS 자소서 강의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해커스잡 공기업 자소서 한달완성반]
차별화된 공기업 자소서 교재를 지금 확인하세요.

PROLOGUE

1. 블라인드 채용이란 무엇인가?
2. 왜 NCS 인가?
3. 왜 자소서에 주목해야 하는가?

해커스 스펙을 뒤집는
NCS 자소서

CONTENTS

MAIN

- 1. NCS 기반 서류전형이 변화하였다.** 14
NCS 기반 입사지원서가 뭐야?
경력 및 경험기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 2. 자소서는 무엇이고, 자소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27
NCS 자소서는 무엇이길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면 자소서 스토리가 나온다.
 - 3. 지원동기와 성장배경의 개요를 작성하라.** 55
청킹-업(Chunking-Up)을 시작하자.
지원동기의 논리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4. 먼저 자신의 직업관과 인생관을 정리해보자.** 62
WDEP 기법으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정리해보자.
 - 5. 회사 분석보다 먼저 사업군에 대한 공부가 필수이다.** 71
공기업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에너지 · 발전 공기업을 분석해보자.
금융권 공기업을 분석해보자.
사회 · 복지 공기업을 분석해보자
 - 6.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 넣어라.** 93
세련된 자소서를 쓰기 위해 추상을 구체화하라.
본인의 캐릭터를 발견하라.
 - 7. 문장을 세련되게 만들어보자.** 104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의 구성요소
 - 8.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일까?** 111
좋은 문장과 나쁜 문장은 무엇인가?
불완전한 문장일 때 오류가 생긴다.
어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 9. 퇴고는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 118
문장을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자.
마지막 미션! 글자 수를 줄여라!
 - 10. 자소서의 마지막 화룡점정! 인문학!** 128
자소서를 쓰는데 꼭 인문학이 꼭 필요한가?
-

프롤로그

- 블라인드 채용이란 무엇인가?

1. 블라인드 채용은 기존에 없었는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했다. 언론에서는 마치 아주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블라인드 채용은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오히려 공공기관 쪽에서는 몇몇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나이, 학력 등을 크게 본 적이 없다. 10년 전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5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되었다. 블라인드 채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학력철폐가 주를 이루었다. 학벌과 학점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2005년 당시의 가장 큰 화두였다. 물론 처음 실시되는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 후유증으로 스펙만 보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5년 공공기관의 평균 토익 점수는 930점이었고, 2006년에는 940점이었다. 이는 스펙과열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결국 정부는 스펙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권고사항과 함께 공공기관의 채용방향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필기가 강화된 것이다. 2005년 이전에는 상식과 전공을 보던 공공기관이 2006년 이후부터는 논술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상식을 종합교양으로 옮겨 평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들은 토익이나 자격증을 일정한 자격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 서류를 통과시켜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2005년 공공기관 학력철폐 후 나타난 공공기관 평균 토익 점수 및 자격증 개수〉

연도	평균 토익 점수	자격증 개수
2005년	930 점	1 개
2006년	940 점	1 개
2007년	965 점	0 개
2008년	910 점	2 개
2009년	945 점	1 개

예를 들어, 당시 한국전력은 토익 900 점 이상은 모두 만점으로 하였고, 한수원은 830 점 이상이면 모두 서류를 통과시켜 주는 형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은 850 이상 만점, 한수원은 700 이상 서류 통과이다. 결국 예전과 현재, 서류전형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영어점수는 오히려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정부가 집권하여 이전 정부와 반대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와 관련된(특히 공채와 관련된)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 생각해보자. 어떤 정부에서 학력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고, 그 뒤 내용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학력철폐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2005년부터 점점 스펙이 완화되어왔고, 학력은 굳이 보지 않았으며, 일부 학점을 보는 공공기관은 있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는 굳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것일까?

2. 현 정부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와 내용

2017년 하반기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소** 공공기관 332개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력서에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의 차별적 요인은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즉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2008년부터 소극적인 블라인드 채용을 해왔다. 2015년부터 도입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역시 스펙을 완화하고 능력 위주로 채용하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발표한 것은 이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도라고 보아도 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채용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입사지원서의 구성요소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입사지원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사지원서 구성〉

구성	내용
인적사항	지원자를 식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
교육사항	학교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내용 기입
자격사항	해당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을 명시
경험 및 경력 사항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을 기입

실제 현 정부에서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NCS 채용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몇몇 출신학교, 사진, 병력 사항 등의 요소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면접에 대한 내용도 바뀐다.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 사항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역시 금지가 된다. 이는 면접 평가가 다각도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블라인드 채용 전·후 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은 철저히 능력 위주의 채용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NCS 채용과 달라지는 점은 특별히 없다고 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전·후 프로세스 비교〉

구분	현행	변경
채용공고	행정직 00명 등 단순정보 제공으로 모집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모집분야별 필요한 지식, 기술 등 채용직무 설명자료 제공
서류전형	학력, 어학성적 등 스펙 중심 이력서	직무 관련 교육, 자격 등 직무능력 중심 인적사항 블라인드 처리
	지원동기와 입사포부 등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	직무 관련 경험·경력 중심의 자기소개서
필기	포괄적인 지식 평가	업무상황에 필요한 지식, 경험 등 직무능력 평가
면접	입사동기, 취미, 개인특성 중심의 비구조화 면접	직무 동기, 과거 경험, 직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

이를 보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NCS 와 크게 다른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스펙은 지금보다 더 완
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은 출신 대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정말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 유무나 적용 유무에 대해 말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너무 당연히 실시하게
될 것이다.

3.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NCS 가 도입된 후 소극적인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1 차 서류전형, 2 차 필기전형, 3 차 면접전형은 어
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서류전형

1 차 서류전형에서 스펙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토익, 자격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
급해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토익 자격요건이나 토익 컷은 760~850 이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보다 토익 컷이 좀 더 높은 900 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자격증 역시 수험생들은 컴
퓨터활용능력 1 급,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은 필수라고 생각해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되더라도 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어학성적을 요구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직접 입증하고, 그 이유를 채용 공고 또
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익을 완전히 보지 않는 공공기관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1 차 서류전형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에 필요한 일정 자격요
건이 갖추어지면 모두 필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이다. 이는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OTRA, 경기
도 공공기관 등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둘째, 스펙이 완화되고 자기소개서가 강화되는 형태이다. 이는 건
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태이다. 자소서 강화의 경우 2015 년부터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며,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일 것이다. 현재 한국전력은 일정 스펙을 점수화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어학 성적이 중심이 되는 서류전형을 실시하였다. 이 기업들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다.

결론은 스펙 평가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소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소서가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르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본인의 역량, 자신의 가치관, 회사의 이해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며,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글쓰기 능력, 지식을 필요로 한다.

(2) 필기전형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면서 필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다. 필기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018 년 내에 실력평가 시스템을 공기업별로 구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 내용은 NCS 를 활용하여 채용 예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 등에 대한 평가척도표를 개발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필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치러질 전망에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2016 년 하반기에 상식과 전공시험으로 치러짐으로써 효과적이었다는 내용도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기관이 필기 채용프로세스는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에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전공)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NCS 의 도입 취지와 목적은 스펙을 완화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CS 의 목적과 현 정부의 목적은 일맥을 상통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직업기초능력의 세부적인 유형이 공기업에 맞게 다양화되고, 문제의 난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는 있다.

둘째는 전공은 그대로 둔 채, 상식이 부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식은 계륜이었다. 상식은 말 출제 범위가 너무 넓다. 또한, 전공과 문제가 겹칠 수도 있어 상식을 쉽게 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어렵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2016 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시, 경기도의 모든 공기업들의 공통과목이 상식이었다. 2018 년까지 지방 공공기관은 계량 및 비계량의 채용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므로 자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했던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 공공기관은 상식이 부활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그 외에 공공기관 중 금융권은 그대로 논술과 전공, 직업기초능력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몇몇 공공기관은 논술시험을 그대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갈 공공기관의 시험 구성을 분명히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3) 면접전형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구조화되고 다각화된 면접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 상황, 발표, 토론 면접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의 도미노 면접, 한수원의 창의성 면접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면접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면접에서 역시 자신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나 회사와 관련 있는 부분을 면접에서 강조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부문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NCS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특별히 다른 점을 찾는다면, 이러한 사례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의 취지가 다를 뿐이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현행 NCS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보다 자소서가 더 중요해지거나 일정요건만 갖추면 필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입사지원서에도 출신학교를 적지 않고, 나이, 사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달라진다. 필기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일부에서는 상식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면접은 직무 중심, 회사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왜 NCS 인가?

2014년 정부에서 “스펙 없는 사회”,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스펙보다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NCS 기반 자소서 강화, 직업기초능력 채용 확대에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NCS 라고 하는 것이 워낙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생소한 탓이 실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다. 더구나 사교육 시장에서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NCS’라는 용어를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NCS 라고 하는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시킨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1차 서류전형에서 3차 면접에 이르기까지 NCS를 기반으로 하여 채용전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부분 사교육 시장에서는 2차 필기 중에서 직업기초능력만을 NCS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NCS라는 큰 틀 안에 직업기초능력이 존재한다. 결국 NCS가 곧 필기시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NCS는 1차 서류전형에서 3차 면접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단계를 살펴보아야 이해가 확실하게 된다. 우선 1차 서류전형에서는 토익과 자격증이 완화되고, NCS 기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가 강화되었다. 물론 스펙반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스펙반영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오버스펙(over-spec)을 가진 사람들에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완화한 공공기관은 온스펙(on-spec)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스펙으로만 전형절차가 이루어지면 허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가 강화된 이유도 허수를 줄이고, 공공기관에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NCS라고 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한 비전, 사업영역의 발전방향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원하는 회사의 비전, 사업방향의 미래와 자신에 역량을 연결시키고 알아내는 것이 NCS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NCS 기반 채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NCS 가 가진 목적인 ‘스펙 없는 사회’, ‘능력중심채용’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NCS 기반 채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기초능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필자도 직업기초능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작금의 사회에 가장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글 쓰는 능력을 가진 인재이다.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는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 노출되어 있다. 그 정보는 바로 ‘글’로 되어 있다. 재생산에 생산을 거듭하는 콘텐츠에 원-소스는 대부분 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기업들도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글쓰기는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다. 단지 ‘NCS’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자신에 역량과 지원하는 회사의 비전을 보기 위함이다.

- 왜 자소서에 주목해야 하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은 늘 혁신의 대상이었다. 지속적인 개혁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운명은 기업성과 함께 공공성을 추구하는 태생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소유권자와 시장의 모니터링과 견제 기능이 구조적으로 부재하거나 미흡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의 한계도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수익 극대화라는 명확하고 지배적인 경영논리에 따라 내·외부적 이해관계자의 견제와 감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외부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부적 감시와는 별개로 기업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정책 아래 수많은 혁신과제가 진행되어 왔다. 공공기관 운영의 방만함을 제거하고 성과주의 확산을 통해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와 같은 정책이 여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까지 성공적인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목적은 공공재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구성원의 복지,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사회 안정성 강화,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과연봉제에서 성과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7 년도는 공공기관 혁신이 주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과제와 성과를 정리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 단기성과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다시 숨을 고르며 지난 4 년간 강력하게 추진된 과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평가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 NCS 기반 채용은 미래를 짚어지고 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2017 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정책의 방향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점이다. 현 공공기관은 정부가 혁신을 제시하더라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제의 피동적인 도입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에너지산업 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기능조정안이 공공기관 생태계의 진화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생태계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란, 공공기관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는 지식과 분석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이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도 논리, 분석능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

민간기업의 생존은 시장원리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생태계의 성공적인 변화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판단능력과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추진력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분석능력, 즉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산업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나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간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수요와 국가정책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체 사회의 수요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인재는 이를 종합하고 예측하는 기본 능력이 사회를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2017 년에 공공기관은 변화 기로에 놓여 있다. 더 나아가 ‘능력중심채용’을 통해 새로운 신입사원의 채용,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과제도 놓여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 둘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이러한 인재를 채용하는 첫 단추가 자소서다. 감히 예상해 보건대 공공기관의 자소서는 더 복잡해지고 치밀해질 것이다. 자기소개서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분석능력, 논리능력, 회사의 비전과 사회를 읽는 능력 등을 갖췄는지를 볼 것이다.

2017 년은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지향하는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가치를 반영하여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 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환경이 자율과 책임의 경영문화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보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말해주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 아닌 인재 동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가를 보는 것이다. 자소서는 ‘글’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논리력을 갖추었다는 말과 통한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올바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면 자기소개서뿐 아니라 면접, 논술에 이르기까지 취업에 필요한 것을 망라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1. NCS 기반 서류전형이 변화하였다.

- NCS 기반 입사지원서가 뭐야?

NCS 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부분은 채용공고이다. 기존의 채용공고에서는 모집분야에 대한 명확한 직무 관련 정보나 평가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는 결과를 가져왔다. NCS 기반 채용공고문으로 바뀌면서 지원자가 입사 후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특히 채용공고에 '직무 설명자료'에서 직무 수행내용,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관련 자격, 직업기초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지원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표 1.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사례〉

• 채용분야

채용분야	행정	대분류	경영, 회계, 사무	NCS 분류체계를 맵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분류	기획·사무, 총무·인사	
		소분류	경영기획, 일반사무	
		세분류	경영기획, 경영평가, 사무행정	

• 채용공고

공단 주요사업	능력개발, 자격검정, 외국인고용지원 등
직무수행내용	(경영기획)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경영평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경영목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이 수행한 성과들을 기준에 따라 분석 정리하여 보고 (사무행정)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전형방법	직무능력평가 → 직무능력면접 → 인턴선발 → 인턴근무기간평가 → 최종정규직 전환
일반요건	기관에 따름

교육요건	기관에 따름
필요지식	(경영기획) 내·외부 환경분석 기법, 사업별 핵심성과 평가 기준 및 전략 기술 등 (경영평가) 경영조직 체계 및 평가방법론, 노사관계법, 인사관련 규정분석, 일정관리방법론, 정보수집 및 분류체계 기법 등 (사무행정) 업무처리 지침 개념, 문서기안 절차 및 규정, 전자정보관리 및 보안규정, 회의운영방법
필요기술	(경영기획) 사업기획 및 보고서 작성기술, 문제 예측 및 대응방안 능력, 분석기법 및 통계 프로그램 운영기술, 의사결정능력 등 (경영평가) 경영공시 시스템 사용기술, 공문서 작성능력, 정보수집 기술능력, 평가분석(SWOT) 활용기술 등 (사무행정) 데이터 베이스관리능력, 문서분류 및 관리능력, 사무기기활용능력, 회의내용 이해 및 처리능력 등
직무수행태도	(경영기획) 객관적인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 태도, 사업파악 및 개선의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청렴성,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 창의적인 사고노력, 의사결정 판단 사세, 주인의식 및 책임감 있는 태도 (경영평가) 경영자원전략자세, 수용적 의지 및 관찰태도, 다양한 정보수집을 하려는 태도, 합리적인 분류자체 등 (사무행정) 고객지향의지, 데이터특성 및 분석기술, 업무규정준수, 업무협조 노력, 회의처리 능력 등
필요자격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자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기관에 따름

위의 표는 공공기관 채용 직무 설명 자료이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공단의 주요 사업과 직무수행 내용이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의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와 직무 계획서를 쓸 수 있다.

그다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들어가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반드시 매칭되어야 한다.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자주 포함되는 것이 “지원하는 직무분야와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에 대한 항목이다. 이 항목에 필요하고 매칭되는 것

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이다. 즉 본인의 경험과 역량이 위에서 제시한 역량과 매칭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직무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매칭〉

필요지식	(경영기획) 내·외부 환경분석 기법, 사업별 핵심성과 평가 기준 및 전략 기술 등 (경영평가) 경영조직 체계 및 평가방법론, 노사관계법, 인사관련 규정분석, 일정관리방법론, 정보수집 및 분류체계 기법 등 (사무행정) 업무처리 지침 개념, 문서기안 절차 및 규정, 전자정보관리 및 보안규정, 회의운영방법
------	--

⇒ 직무관련 학습내용: 내·외부 환경분석 기법은 경영학 원론에서 공부

⇒ 직무관련 경험: 경영조직 체계 및 평가방법론은 조직이론에서 조 과제 실시

위에서 보듯 직무와 자신이 한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기존의 공채를 생각하고 ‘NCS 기반 직무설명자료’를 읽어보지 않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NCS 기반 입사지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직무 관련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인적사항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기전형, 면접전형 혹은 입사 시 지원자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한다. 어학점수를 쓰는 란도 있지만, 요즘은 점점 어학점수를 쓰는 곳이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부발전이나 동서발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NCS 채용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예시〉

1. 인적사항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지원구분	신입()	경력()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월/일)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반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 내용]

두 번째는 교육사항이다. 교육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등 직무에 관한 지원자의 관심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기타 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는 이수한 과목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야 하고, 인정받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지원자들이 어떤 과목을 기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비전공자(상경이나 법정, 기술직 부문 제외한 사람들)는 무엇을 써야 직무와 관련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교양과목이나 다른 전공과 관련된 것을 연결하면 된다.

〈NCS 채용 입사지원서 교육사항 예시〉

2. 교육사항(모집대상 직무와 연관이 있는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등	
• [경영기획 업무]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경영평가 업무]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사무행정 업무]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지원기관의 직무관련 업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주요 업무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도로공사-도로관련 교과, 소비자보호원-소비관련 교과, 인력공단-인력개발 관련교과 등)	예() 아니오()
• [사무행정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34개 하위영역 중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정보능력, 사고력 등 관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주시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교육과목(직업기초능력 포함)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예시) 과목 1. 문헌정보학 입문→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과목2. 한국어 의미의 이해→문서이해 및 문서작성능력, 과목 3. 철학개론→사고력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교육	
교과목명	학점(내신 등급)	교과목명	이수시간(h)	교과목명	이수시간(h)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반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 내용]

위의 예시에서 [경영기획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공고문에 게시된 '직무설명 자료'이다. 직무 설명 자료에서 보면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되어 교양과목이라도 들었다면 반드시 '예'란에 체크를 학교교육에 대한 부분을 쓰면 된다. 이 부분도 평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항목은 자격증을 쓰는 란이다. 자격증은 국가 기술자격이나 민간자격, 기타자격이 들어간다. 지원자들은 무조건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공통 자격증(컴퓨터 관련 자격증, 한국사 검정능력 3 급 이상, 한국어능력 3 급 이상, 토익스피킹 Lv7)으로 각 5 점을 부여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사 검정능력 고급 이상에 가산점을 주고, 토익스피킹은 Lv7 과 Lv8 에 대한 가산점을 따로 부여한다. 참고로 요즘 사무직에서는 한국사검정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기술직은 해당 직렬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 여기에 들어간다. 기술직이라고 필수로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기재하기를 권한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지원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경력 혹은 경험사항에 대해 쓰는 부분이다. 이 부분으로 인해 인턴을 꼭 해야 한다는 루머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인턴을 우대해주는 공공기관도 있지만 인턴이 꼭 필수는 아니다.

〈NCS 채용 경력 혹은 경험사항 예시〉

4. 경력 혹은 경험사항(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경력 혹은 경험사항)	
*4-1)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기업조직에 소속되어 [경영기획 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기업조직에 소속되어 [경영평가 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기업조직에 소속되어 [사무행정 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기업조직에 소속되어 [지원기관의 직무 관련 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근무시간	기관명	직위 / 역할	담당업무

*그 외의 경력 사항은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시간	기관명	직위 / 역할	담당업무

*자세한 경력 사항은 경력 및 경험 기술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경험은 직업 외적인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과제수행경험,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경영기획 업무] 관련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과제수행경험 및 기타 활동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경영평가 업무] 관련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과제수행경험 및 기타 활동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사무행정 업무] 관련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과제수행경험 및 기타 활동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지원기관의 직무관련] 관련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과제수행경험 및 기타 활동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과제수행경험 등		기타 활동경험	
수행평가 내용	과제내용	소속조직	주요역할

*자세한 사항은 경력 및 경험기술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 내용]

위를 보면 경력 혹은 경험에 대해 쓰도록 되어 있다. 경력은 인턴이나 사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쓰는 곳이다. 경력이 없다면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것이 '경험'이다. 입사지원서를 쓰고 나면 자소서 항목 중 '경력 및 경험 기술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경험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경험은 프로젝트, 산학협력,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등이 들어간다. [경영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설명 자료를 보면 경영기획에 대한 태도에서 '객관적인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태도, 사업파악 및 개선의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청렴성,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 창의적인 사고 노력, 의사 결정 판단 사세, 주인의식 및 책임감 있는 태도'라는 부분이 나타난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예'라고 표기하고 활동내용을 기재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발표 동아리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다면 '객관적인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태도'에 해당하는 경험이 있다고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NCS 가 도입되고 나서 입사지원서부터 낯설어지고 힘들어졌다. 하지만 앞에서 쓴 것과 같이 본인이 경험한 학교에서의 경험과 사회경험, 경력들은 모두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한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서류전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 경력 및 경험기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NCS 기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첫 번째 난관이 등장하니 그것은 바로 경력 및 경험 기술서다. 대부분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을 쓸 때 본인이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여기에서는 각오를 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한 경험이나 경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쓰면 되는 부분이다. 또한, 입사지원서에 쓴 항목을 좀 더 자세하고 직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기술하는 항목이다. 경력과 경험 기술서를 명사형으로 나열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쓰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력 및 경력 기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경력 및 경험을 쓰는 기업과 경험만을 쓰는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경험만 쓰는 기업은 한국전력이 있다. 나머지 공기업의 대부분은 경력 및 경험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전력의 항목은 어떤 것이 다른지 살펴보자.

〈한국전력 직업교육 기술서〉

1. 지원분야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분야, 과목명, 주요내용, 성과 등/온라인 교육 포함) (띄어쓰기 포함 100~400자로 작성)

위의 항목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앞서 쓴 입사지원서에서 교육 항목을 썼다면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한국전력 공사는 자기소개서 평가가 적·부 판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에 맞게 써야 한다. 조건에 맞추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다. 분야, 과목명, 주요내용과 성과의 순서로 쓰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야란 사무나 기술의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영학개론, 국제마케팅 수업을 들었다면 더 큰 카테고리는 ‘기획 사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목은 그 분야에서 들었던 과목이다. 다시 말해 입사지원서에 쓴 과목을 다시 쓰면 된다. 주요내용은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과목의 목적과 내용 등이다. 마지막 성과는 어떤 지식을 습득했고, 기술을 습득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쓴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자.

〈한국전력 직업교육 기술서 작성 사례〉

1. 지원분야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분야, 과목명, 주요내용, 성과 등/온라인 교육 포함) (띄어쓰기 포함 100~400자로 작성)

① 경영학과로서 사무에 필요한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② 먼저 기획사무 역량을 위해 마케팅원론, 국제마케팅, 기업광고론, 마케팅조사론, 소비자 행동분석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③ 마케팅 기법들을 배우고 나아가 팀 과제를 통해 문제에 따른 조사 방법을 직접 적용해봤습니다. ④ 특히 마케팅조사론 과목에선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료처리론, ITQ, 경영통계 과목을 통해 컴퓨터사무역량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관리, 회계원리, 중급회계를 이수하여 자금수요예측과 조달 그리고 회계방식을 익혔습니다. 인사관리, E-business, 생산운영관리, 경영학원론을 통해 인사관리와 생산관리, 경영에 대한 이해를 키웠고 경제학원론, 미시경제, 관리경제를 통해 경제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위의 자소서는 본인의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직업교육 기술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토대로 적는 것이 일반화된 방법이다. 경험을 토대로 조건에 맞춰 쓰는 것이 이 항목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①번은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②는 과목명에 대한 것이 기술되어 있고, ③은 마케팅 기법이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④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자소서이다.

이 자소서는 성과로 성적을 기입했는데, 반드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성과로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기술해도 무관하다. 혹은 입사지원서에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는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러나 입사지원서 하단을 살펴보면 ‘자세한 사항은 직업교육 기술서에 기술해 주세요.’라는 항목이 있다. 그러므로 입사지원서에 쓴 과목을 반드시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경력 및 경험기술서도 마찬가지다. 입사지원서에 쓴 경력 및 경험을 자세히 써야 한다. 경력은 정당한 임금을 받고 한 행위를 말하며, 인턴, 회사생활, 아르바이트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경험은 동아리, 동호회, 프로젝트, 공모전, 재능기부 등이 포함된다. 한국전력은 경력 및 경험기술서가 아니라 경험기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에 경험기술서에는 인턴이나 회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경력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들이 한전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체험한 것을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경험만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없다.

〈한국전력의 경험기술서〉

지원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산학협력, 팀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경험 혹은 활동내용, 활동결과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00 자)

위의 경험기술서를 보면 산학협력,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라고 제시하고 있다. 구성 역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학습경험이나 활동내용 그리고 활동결과에 대해 쓰는 것이다. 활동결과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본인의 역량인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된다. 여기에서 팀을 주자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역량으로 한국전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한 줄 정도 첨가하는 것이 좋다.

〈한국전력 경험기술서 작성 사례〉

지원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산학협력, 팀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경험 혹은 활동내용, 활동결과에 대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00 자)

‘피티스타’라는 프레젠테이션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니브엑스포 기획을 했습니다. 유니브엑스포에서 시행되는 동아리 홍보방안에 대한 기획 내용이었었습니다. 청중을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조사와 분석력, 논리구조를 생각하여 문제를 파악했고 세련된 PPT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배우고 수십 번의 발표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 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PT 발표를 하여 기획한 주제가 채택되는 성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획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었고 팀원으로서 적극적인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기획에 가장 필요한 논리적 설득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의 논리적 설득능력과 기획능력을 통해 한국전력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위의 자소서서 한국전력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내용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피티스타’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유니브엑스포 활동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그 뒤 배운 점을 기술하여 입사지원서에서 쓴 자신의 경험을 구체화 시켰다. 특히 활동결과에서 경영기획에 필요한 논리적 설득능력과 팀워크, 컴퓨터 능력을 배웠다는 결과가 나와 있으므로 적절한 자소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첨가해 한국전력이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사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여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낸 것도 좋은 자기소개서의 사례라고 하겠다.

대체로 대기업 자소서를 많이 쓴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것이 낫선 기술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경험기술서 또는 경력기술서는 자신이 한 경험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신이 한 과업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경력 및 경험 기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표준 방식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다. 한수원의 경력 및 경험 기술서의 구성을 따라가보도록 하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력 및 경험 기술서〉

1.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경험(금전적 보수 없음) 혹은 경력(금전적 보수 있음)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활동(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을 통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쌓은 경험 또는 경력사항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1000자 이내)
 - 1-1. 언제, 어디서 활동했던 경험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 이내)
 - 1-2. 해당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400자 이내)
 - 1-3. 해당 활동의 결과와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400자 이내)

위의 항목은 경력 및 경험에 대한 기술서로 한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지원할 때 반드시 쓰는 항목이다. 그중 한수원은 무조건 한 번은 써봐야 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이유는 한수원 자소서 항목 구성이 경력 및 경험 기술서를 구성하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 기술하라는 대로 쓰면 하나의 자소서가 된다. 그러므로 한수원 자기소개서를 써본다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력 및 경험 기술서에 대한 감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작성 사례〉

1.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경험(금전적 보수 없음) 혹은 경력(금전적 보수 있음)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활동(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을 통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쌓은 경험 또는 경력사항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1000자 이내)
 - 1-1. 언제, 어디서 활동했던 경험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 이내)
(인턴 경력을 쓰는 경우)

컨벤션 회사에서 계약직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8 회 동아시아 댐 기술교류회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저는 컨벤션 1 팀에 소속되어 국제회의와 서울 투어, 기술 댐 투어 등의 4박 5일의 행사의 기획에 참가했습니다. 내용

은 기획에서 투어 참가자 통솔, 행사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동아리 경험을 쓰는 경우)

대학교 1 학년에서 4 학년까지 ‘스피커’라는 토론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토론은 주로 경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고, 토론대회를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그중 저는 한국 인권·평화 토론대회에 참가하였고, 저희 조의 주제는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는 개발도상국의 인권향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1-2. 해당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400 자 이내)

(인턴 경험을 쓰는 경우)

저는 이곳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진행 인력 교육과 인력 통솔, X 배너, 현수막, 료사인 등의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요청하고, 국제회의에서 진행할 시나리오 대본을 작성하고 번역 사항 등을 요청하여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진행 중에는 중국 참가자들을 인천공항에서부터 맞이하여 서울 투어를 통솔하여 진행하였고, 기술 댐 투어에서는 일본 참가자들을 통솔하여 투어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동아리 경험을 쓰는 경우)

저는 토론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우리 조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모두 분석하고 토론에 임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학과의 특성을 살려 양적 조사분석을 맡았습니다. 저는 개발도상국의 인권향상을 수치화하고, 보건, 음식, 문화요소에 대한 부분도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화된 결과를 토대로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인권 운동과 비교분석을 하였습니다.

1-3. 해당 활동의 결과와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400 자 이내)

(인턴 경험을 쓰는 경우)

국제회의와 기술 댐 투어에서는 일본 및 중국 참가자들과의 MOU 체결로 행사는 성공리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행사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문서 작성능력과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숙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PPT 자료를 만들면서 문서의 디자인 작성능력과 문서 구성 방법을 통해 기획능력, 갈등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배웠습니다.

(동아리 경험을 쓰는 경우)

토론 대회에서 저희 조는 3 위에 입상하였습니다. 해결방향은 일반적이었지만 분석을 통해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한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통해 양적 분석과 비교분석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토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프와 표로 정리하였고, 조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스토리 구성능력, 협업과 소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수원의 경력 및 경험 기술서는 순차적으로 조건에만 맞게 쓴다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자소서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1-3 에서 ‘배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운 점’을 쓸 때 반드시 입사지원서와 공고문에서 본 역량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NCS 기반 자소서에서 강조하는 문서작성능력, 협업능력, 소통능력을 강조하면 조건에 맞는 자소서를 쓸 수 있다.

한수원과 비슷한 경력 및 경험 기술서지만, 포인트가 다른 경우도 있다. 항목이 미묘하게 다르므로 붙여 넣기는 삼가야 한다.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복사·붙여넣기를 하는 수험생들은 종종 보게 되는데 비슷한 항목일 뿐 절대 같은 항목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 및 경험 기술서를 보면 확실하게 한수원과 차이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지원 분야와 관련된 업무 경력 및 실적 등 경력사항이나 기타 경험 및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사항의 경우, 채용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업 또는 조직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경험 및 활동의 경우,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등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쌓은 경험에 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1.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나 경험 및 활동의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400byte 이내)

1-2. 해당 조직이나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을 기술해 주십시오. (400byte 이내)

1-3. 해당 경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 후 업무 수행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400byte 이내)

위의 경력 및 경험기술서를 보면 1-1 과 1-2 는 한수원과 같다. 하지만 1-3 은 한수원과는 기술 포인트가 다르다. 한수원에서는 ‘배운 점’을 기술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입사 후 업무 수행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공단의 경력 및 경험 기술서를 쓰기 위해서는 회사 분석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노력을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본인의 역량과 연결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역량〉

건보에서 필요한 역량과 역할

- 건강보험에 대한 안내와 건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 주기 위해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뉴얼 속지를 통해 원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예산활용을 위한 문서 작성능력, 홈페이지에 국민에게 정보를 쉽게 알려 주기 위해 이미지 작업이 필요한데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 필요한가?

- 건보는 국민이 좀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역량

- 인력을 통솔하기 위한 매뉴얼 속지, 대본 작성을 통한 문서 작성능력,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 디자인 능력

위의 사례처럼 한수원의 항목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경력 및 경험기술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자소서 항목에서는 경험을 중심으로 쓰는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직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경력 및 경험 기술서라고 할 수 있다. 경력 및 경험기술서는 한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500 자, 800 자 내외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항목을 볼 때도 당황하지 말고 한수원이나 건보와 같은 형식과 구성으로 작성하면 좀 더 쉽게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소서는 무엇이고, 자소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 NCS 자소서는 무엇이길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어떤 과업이나 생각을 하다 막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문학적 사고이다. 데카르트의 주문인 ‘의심’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문인 ‘본질’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통해 의심할 수도 있다. 또한,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다. 자소서의 항목은 모두 본질과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기소개서’라는 원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소서의 본질은 ‘글’에 있다. 세분화 되면 글 중에서 ‘에세이’라고 하는 것이다. 글의 성격 중 가장 본질에 있는 성격은 설득하는 것이다. 읽는 사람을 설득해내는 것이 바로 ‘글’의 본질이다. 글의 종류에는 ‘시’, ‘소설’, ‘에세이’, ‘논문’, ‘설명문’, ‘논설’ 등 문자로 표현되는 것은 모두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운율과 은유, 환유라는 기법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설득시킨다. ‘소설’ 역시 스토리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에세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독자를 보편타당하게 설득시킨다. 결국 자소서도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 생각을 통해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다.

그래서 자소서를 적는다는 것은 글을 쓰는 것임에 틀림없다. 좋은 자소서,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막연한 생각과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글을 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항목에 맞춰 쓰기 급급하다. 결국 주제가 없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특히 NCS 가 도입되고 난 뒤의 자소서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변하였다. 자소서 항목이 구체화 되었다는 것은 조건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 조건에 맞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의 보편타당성이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스토리가 보편타당하게 느껴진다면 괜찮은 자소서로 보일 수 있다. 보편타당성이란 누가 보더라도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조건에 필요충분조건이 맞춰지는 것을 말한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

더라도 글 안에는 본인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단, 조건에 맞는다는 한에서이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조건에 주어진 포인트가 맞을 때 자기소개서는 힘을 받는다. 아래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소서 항목에만 급급해서 쓴 글)

1. 성장과정(가족, 학창시절, 사회경험 등)을 통하여 본인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경험과 이에 따른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릴 적부터 사회적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사회적 소수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란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에 2박 3일간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가난과 고통으로 세상에서 소외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오게 된 사람들, 노인,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고, 암흑 속에서 눈을 가리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느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소수자,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막연히 두려웠던 사람들이 2박 3일간 함께 생활하며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혜택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선택할 것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가치관이 생겼고, 국내아동후원과 아프리카 해외지원사업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또한,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통 속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아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위의 글을 살펴보면 위의 글은 스토리의 보편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앞부분을 살펴보면 부모님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을 키웠다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2박 3일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살피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앞의 스토리와 모순이 된다. 그래서 위의 글은 단순히 지금 자신이 국내 아동 후원, 아프리카 해외지원사업 후원을 자랑하고 싶어서 쓴 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성장과정을 통해 본인을 소개해 달하는 말과 함께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경험에 대해 쓰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앞의 글은 단순히 ‘성장배경’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 쓴 글로 보인다. 항목의 조건과 자신이 하고 싶은 스토리와는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장과정을 통해 본인을 소개해 달

라는 조건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가풍, 가족 분위기, 돈이 많고 적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또한, 자신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본인에 자라온 환경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있다면 그 가치관을 의심하거나 부정당하는 사건, 또는 확신을 하게 된 사건을 적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영향을 적어야 하므로 본인의 가치관과 가치관에 따른 변화를 적는 것이 포인트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쓴 글〉

1. 성장과정(가족, 학창시절, 사회경험 등)을 통하여 본인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경험과 이에 따른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일찍부터 독립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찍 독립하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 대한 독립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규율을 심했고 반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20 대에 와서 저는 무엇을 혼자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먼저 겁을 내고 있는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에게 여행의 의미는 여행에서 무엇을 느끼기보다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행의 계획에서부터 여행경비까지 모든 것을 저 혼자서 결정하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6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700 만 원을 모아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 개월간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번 돈을 통해 제가 원하는 국가를 다니고 원하는 것을 보니 한 걸음 걸음이 소중했고, 눈에 담기는 모든 것이 오롯이 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갈 때 많은 책임감도 따르지만 모든 것이 저에 인생에 의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자소서를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조건에 맞춰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다. 독립적이지 않게 살아온 어린 시절의 본인의 모습, 그 뒤 혼자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노력, 그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가치관들이 나타나면서 분명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위의 자소서는 소재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고, 가치관을 풀어내기 위한 소재를 찾은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잘 쓴 자소서와 못 쓴 자소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자소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어떤 곳은 붙고, 어떤 곳은 똑같이 썼는데도 떨어지는 것이 자소서다. 이럴 때는 단순하

게 생각하면 된다. 항목의 조건과 보편타당하지 하지 않은 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 단 쓰는 본인이 무엇을 쓰는지는 알고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자소서는 늘 쓰기 싫다. 항상 쓰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더 나아가 취업에 대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과 생각들은 너무 당연하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도 모른 채 쓰고 있는 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글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 경험들이 넘쳐날 때 써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소재가 이 자소서 항목에 맞을 것이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면 자소서는 억지로 쓰는 글이 될 것이고,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특히 NCS 기반 자소서 항목을 보면 경험을 쓰는 것보다 본인의 생각을 쓰는 경우가 있다. 또는 자신이 한 경험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항목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특별한 경험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항목이 많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쓰던 자소서 틀을 모두 버려야 한다. 어떤 틀에 넣어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의 폭을 넓혀 정말 ‘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때이다.

-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면 자소서 스토리가 나온다.

NCS 기반 자소서를 도입하면서 공기업 자소서 항목들이 많이 변화했다. 기존에 묻고 있던 ‘성장배경’, ‘입사 후 포부’, ‘지원동기’ 등은 거의 없어지고, 디테일한 것을 묻는 항목으로 변화하였다. 디테일한 항목으로 인해 자소서 쓰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항목을 제대로만 분석한다면 스토리가 생성되므로 쓰기는 더 편해졌다고 생각해도 된다. 항목에 나오는 조건에 맞게만 쓴다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자소서로 변화한 것이다. NCS 기반 자소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생각과 방법을 요구하는 항목, 자신의 경험을 요구하는 항목, 마지막으로 지식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① 생각과 방법을 요구하는 항목 분석

생각과 방법을 요구하는 항목은 인과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설득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설득하였으며, 성공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십시오.’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설득을 한 경험을 구구절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성공전략을 바탕으로 본인이 정말 이 방법을 취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생각을 요구하는 NCS 기반 자소서 항목〉

분류	자소서 항목	공공기관명
설득과 증재	자신이 속했던 조직(학교, 회사, 동아리 등) 안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타인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양보하거나 희생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IBK 기업은행
가치관	입사 후 직장생활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문분야 작품(도서, 영화, 미술, 음악 등)을 선정 후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보험공사
	본인의 가치관 형성해 전환점이 된 인문/예술작품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서발전
역량	본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큰 성공과 실패의 경험 및 그러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점 혹은 변화하게 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신용보증기금
	지원한 직무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행해온 노력과 앞으로 해당 직무분야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교직원공제회
노하우 습득	본인의 강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그것이 한국동서발전의 비전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동서발전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습득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 및 관련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상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뒤에 붙는 독특한 문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령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라는 문장이다. 이 항목을 마주했을 때, 지원자가 실수하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를 ‘일방적 글쓰기’라고 한다. 자소서는 요구와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다. 자소서 항목에서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자신의 경험만 쓴다는 것은 일방적인 글쓰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대부분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정답의 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OO 기법, OO 기법으로 글을 쓰면 된다고 마치 자소서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기법들이 통하던 시기가 있었다. 단순하게 ‘자기소개’,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라는 항목들이 판을 치던 시기였다. 아직까지 소수 공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공기업들은 항목에 조건들이 붙기 시작했다. NCS 기반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조건에 있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 자소서 방향은 이제 OO 기법으로 통하던 시기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소서의 구성이다.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방식이 논리적인 방식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기업 자소서 항목은 대단히 친절하기 때문이다. 이 친절한 자소서를 토대로 쓴다면 좋은 자소서의 구성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요구하는 항목은 더욱 그렇다.

〈자소서 항목〉

자신이 속했던 조직(학교, 회사, 동아리 등) 안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런 항목을 받으면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설득한 경험’에 대해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일단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분석부터 해야 한다. 분석은 항목을 일일이 분해하여 나열해보는 것이다. 위의 항목을 분해해보자.

먼저 ‘자신이 속했던 조직(학교, 회사, 동아리)’이라는 필요조건이 보인다. 그렇다면 학교나 회사, 동아리 등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는 충분조건이 성립된다. 두 번째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라는 필요조건이 있다. 이는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가 있어야 충분조건이 성립된다. 더 나아가 ‘효과적’이라는 단어도 지나치면 안 된다. ‘효과적’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적을 지닌 행위는 조직 내에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반드시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일은 조직 내의 프로젝트나 결과물을 내기 위한 토론이 전제된다. 또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대가 있다는 상황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이 나온 뒤, 세 번째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필요조건이 존재한다. 이 조건은 총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설득’, ‘합의’, ‘하거나’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하거나’의 뜻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이다. ‘설득’을 한 경험이나 ‘합의’를 한 경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는 것이다. ‘설득’은 ‘당신의 관점을 타인에게 납득시키는 것, 당신의 아이디어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말에 찬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자신의 논리를 이용해 상대를 완전하게 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설득’을 선택했다면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납득했는지를 적어야 한다. 만약 ‘합의’를 했다면 ‘설득’과는 또 다르다. ‘합의’란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를 했다면 서로의 주장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충분조건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항목이 나왔을 때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자소서 내용에 ‘저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한 다음 상대를 설득시켰다.’라는 문장을 쓰는 경우이다. 물론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 하지만 ‘설득’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되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니 설득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설득당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설득’을 했다면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 내용이 존재해야 하고, ‘합의’를 했다면 두 개의 상이한 주장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자소서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일은 조직 내의 프로젝트나 결과물을 내기 위한 토론이 전제된다. 또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대가 있다는 상황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의견에 조율은 반드시 이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은 ‘합의’나 ‘설득’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례를 들어야 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마지막 두 개의 조건이 남아 있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이라는 조건과 ‘성공 요인’이라는 조건이다.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라는 조건은 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공 요인’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설득’하거나 ‘합의’한 부분에 성공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합쳐보면 약 7가지의 조건이 존재한다.

〈조건에 따른 항목분석〉

1. 자신이 속한 조직(학교, 회사, 동아리)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2. 반드시 공동체의 이익이 대변되어야 한다.
3.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
4. 의견에 조율은 반드시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5. 의견의 조율은 반드시 ‘합의’나 ‘설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6. 1~5 번까지의 경험은 간단하게 적어야 한다.
7. ‘합의’나 ‘설득’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적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토대로 하면 자신의 스토리가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소서 항목 분석만 잘 하더라도 충분히 스토리가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니 분석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 어디까지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하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의 자소서 틀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글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차례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분석한 내용에 따라 쓴 스토리텔링〉

자신이 속했던 조직(학교, 회사, 동아리) 안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 자신이 속한 조직(학교, 회사, 동아리)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 대만 교환학생을 하던 당시 한국 학생 모임에서 축제 준비를 하면서 일어난 일.
2. 반드시 공동체의 이익이 대변되어야 한다.
 -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테마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

- 나는 어묵탕이나 떡볶이 등의 분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먹거리를 알리고, 한국의 10 대, 20 대 문화를 알리자고 함
- 상대는 비빔밥, 불고기 등의 한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먹거리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알리자고 함.

4. 의견에 조율은 반드시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에는 모두 동의함.

5. 의견의 조율은 반드시 ‘합의’나 ‘설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의견의 조율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짐.
- 현실적으로 분식을 선택하고, 10 대, 20 대의 문화를 알리는 것보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알리자는 것에 동의.

6. 1~5 번까지의 경험은 간단하게 적어야 한다.

- 대만 교환학생 당시 대학 축제를 준비할 때 한국 학생모임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와 놀거리 항목을 만들기로 했다. 나는 분식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만들고, 한국의 10 대, 20 대 문화를 알리자고 했고, 상대는 비빔밥, 불고기 등의 한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먹거리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알리자고 했다. 그래서 의견의 조율을 실시했다. 현실적으로 분식을 선택하고 전통놀이 문화를 알리자는 것에 동의했다.

7. ‘합의’나 ‘설득’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적어야 한다.

-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 단체에 능력으로는 맛있는 한식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
- 현실적으로 분식을 제안하고, 한국을 알리자는 목적에 부합해 전통놀이를 받아들임.
- 성공요인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합의’가 됨.

위와 같이 먼저 항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대입하는 형식으로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작성이 어렵다. 또한, 항목에 딱 맞는 경험이 없어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NCS 기반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대다수의 경험은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 동아리에서 한 경험들이라면 충분하다. 항목 분석을 통해 자신이 한 경험을 대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소서 항목〉

타인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양보하거나 희생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의 항목을 보면 앞의 자소서 항목과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실제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앞의 항목과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지금의 자소서 항목을 분해해보면 앞의 자소서 항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조건은 반드시 타인이 이해가 상충되어야 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익이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상반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서로의 이익에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존재해야 한다. 그 후 본인이 양보하거나 희생한 사례를 들어야 하는데,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양보 또는 희생을 선택한 ‘이유’이다. 양보란,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는 것이고,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 따위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자소서 항목도 양보와 희생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주장을 굽혀 상대의 의견을 따랐다면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신이 만약 시간이나 돈에 대한 이익을 버리고 상대의 의견을 따랐다고 한다면 ‘희생’이라고 기술해야 한다.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대가 나와 이해가 달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2. 본인이 상대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
3. 이때 ‘양보’를 한 것인지 ‘희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4. ‘양보’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대의 이익이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
5. ‘희생’을 선택했다면 본인이 잃는 것에 대해 반드시 드러나게 써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난 이런 경험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공기업에 모든 자소서는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험보다는 경험의 원인과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소서는 우연히 살아온 경험을 필연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대부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라

는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학교생활을 했고, 대외활동, 동아리 활동은 취업을 위해, 로드맵을 그리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글은 누가 보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한다. 자소서도 마찬가지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지려면 우연의 사건을 필연으로 옮겨 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과 방법을 요구하는 항목’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도 이러한 항목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에 가장 좋은 자소서 항목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세분화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자소서 항목)

입사 후 직장생활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문분야 작품(도서, 영화, 미술, 음악 등)을 선정 후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가치관에 대한 항목을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가치관을 문장과 말로 나타내라는 주문이다. 흔히 가치관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가치관은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떤 기준에 의해 사회를 바라보는지, 대상을 판단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치관을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뒤의 챕터에 나오는 ‘WDEP 기법’에서 소개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법 외에도 가치관을 문장으로 만들 때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롤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다. 롤 모델을 찾는 방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롤 모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직책이나 임무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롤 모델을 찾는 방법에서 처음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선택한다.

직관적인 방법이란, 롤 모델이 될 사람을 선정할 때 이미지 등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 또는 본인이 끌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롤 모델로 선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역사 공부를 하다가 김구 선생님의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롤 모델은 김구 선생님이 되며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다음의 행동이 중요하다.

롤 모델을 선정했다면 이제 깊이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 이미지만을 가지고 롤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롤 모델의 전기나 쓴 책들을 읽어가면서 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본인에 생각이 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롤 모델을 처음부터 찾는 것도 좋다. 롤 모델을 찾았다면 그들이 한 이야기나 사상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어 보면 자신에 가치관이 된다. 가치관과 가장 연관이 있는 항목은 '성장과정'이나 '입사 후 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여기에서는 위에 나타나 있는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1. 입사 후 직장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본인의 가치관을 매칭시킨다.
2.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3. 본인의 가치관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 회사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기술한다.
4.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도서, 영화, 미술, 음악을 찾는다.
5. 도서면 줄거리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을, 영화는 감상 포인트를, 미술이면 미술 작품에 끌렸던 이유를, 음악이면 음악에 끌린 배경을 적는다.

위의 항목을 통해 스토리를 만들려면 본인의 가치관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본인의 가치관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장으로 만든 뒤에는 충분히 도서, 영화, 미술 등을 찾을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작성해야 하는 자소서라면 가치관을 먼저 문장으로 쓰는 능력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판단하는 관점이 있다. 단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문장으로 만든 다음 책을 읽는다면 충분히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나 영화가 될 것이다. '책'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철학책이나, 사회학책을 선정하지는 말자. 책은 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소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보자.

〈자소서에 도움이 되는 책들〉

에밀 아자르 〈자기 앞의 생〉	주인공 모모의 성장소설처럼 보이는 소설이다. 하지만 내용에는 우리가 늘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 책은 사회를 보는 관점과 소외된 계층, 사회 문제를 생각하기에 좋은 책이다.
톨스토이 〈이반일리치의 죽음〉	이 책은 삶에 무기력했던 이반일리치라는 주인공이 자신에 죽음과 맞닥뜨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하는 내용이다. 이 책은 살아가는 근원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려주는 책이다.
알베르 까뮈 〈이방인〉	실존주의 소설의 대표작이다.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주인공 뫼르소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뫼르소는 지금 허무주의를 겪고 있는 20 대의 모습과도 너무 닮았기에 허무주의를 탈출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펠립로스 〈울분〉	외국 문학은 어렵다는 편견이 사라지는 책이다. 주인공의 모습에서 독립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의 자화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에 모습에서 사회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가브리엘 가스시아 마르케스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기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 문체가 돋보이는 소설 중 하나이다. 사실 중심의 기술 방식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소설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순, 마녀 사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스페인 소설이다.
모니카 마론 〈슬픈집승〉	얼핏 보면 불륜소설과도 비슷한 이 소설은 자소서에 국한되기는 어려우나 통일 관련 공공기관인 극동문제 연구소, 남북협회, 남북하나재단 등을 지원할 때 한 번쯤을 읽어 보았으면 하는 책이다.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 중 하나이다.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공공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법에 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정의를 위해 어떤 짓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인간의 벌은 어디까지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도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읽어야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은 사고를 넓히는 데 가장 뛰어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수많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 주는 도구 중 가장 뛰어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풀리지 않는 보편적인 정의를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책에 존재한다. 보편적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답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자소서에서 가치 판단과 같은 내용이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책이다. 이 책들을 바탕으로 위의 자소서 항목을 쓴 것을 살펴보자.

입사 후 직장생활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문분야 작품(도서, 영화, 미술, 음악 등)을 선정 후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서울보증보험은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적응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의 가치관인 ‘변화하는 삶과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나의 내일이 변화한다.’라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배운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톨스토이의 <이반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과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입니다. <이반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자신에게 어떤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일상은 늘 같아야 하며, 다른 일이라도 생기면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겪습니다. 이런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삶이 바로 ‘real-life’입니다. 주인공은 스스로 변화하고 삶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에서도 주인공인 모르소는 전형적인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의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음의 목전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이 하는 태양 살인도 일종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히스테리였습니다. 모르소도 역시 죽음의 목전에서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하고,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내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은 가장 멍청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내일에 나를 기대하기에 지금 현재 변화하는 사회를 직시하고 읽어내며 저 또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위의 자소서에는 책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 가치관을 먼저 문장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한 사람에게 자소서다. ‘변화하는 삶’이라는 단순하지만 명료한 문장을 먼저 선택했다. 이 문장을 본다면 누구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책 선정 또는 영화 선정, 회사와의 연결고리 등에 많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소서에서는 먼저 회사의 역할을 쓰고, 역할에 따른 특징을 기술했다. 그리고 ‘변화’라는 단어 하나와 자신에 가치관을 연결해 쓰고 있다. 또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소설’을 선택한 것도 특징이다. ‘소설’의 내용을 읽고 반드시 또 읽어야 하는 부분이 고전 뒷부분에 항상 있는 평론들이다. 평론을 선택해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만들면 위의 문장처럼 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자신에 가치관을 정리하고 자신을 보여주는 자소서 항목 역시 필요로 한다.

② 자신의 경험을 요구하는 항목

수험생들이 자소서에서 경험을 요구하는 항목을 접했을 때 ‘경험’에만 생각이 멈춰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찾기 위해 많은 수험생들이 헤매고 있다.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본인의 역량을 기술하되 어떤 경험을 통해 얻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쓰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기존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대부분 ‘다른 방식을 시도한 사례’를 찾기 위해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경험도 쓸 수 없다. 이 항목은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한 사례에 대해 적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기존에 했던 방식과 기준이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부분적인 방법을 바꾼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경험을 적는 항목을 적을 때 약간에 스토리 수정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자소서 항목이 복잡해짐에 따라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참여하여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팀 작업 중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몰입해 보았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라는 자소서 항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어려움을 예상’했다는 경험이다.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즉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나 팀 작업은 사실이어야 하지만 내용에 디테일한 스토리는 조금씩 바꿔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원자 본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사실만 적은 자소서)

2011년 필리핀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영어로 산수와 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울 열의가 없자 저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걸 알아채신 봉사단 팀장님께서 아이들의 걸음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이 분위기가 낯설고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먼저 다가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저의 노력이 아이들이 알아주었는지 아이들이 삼삼오오 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도 가끔씩 그들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꾸민 자소서)

2011년 필리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교육시설을 지어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산수와 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기초 생활도 되지 않는 가난한 아이들이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수와 과학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배울 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봉사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시설을 지을 때, 아이들 곁으로 가서 돌멩이와 벽돌, 빵들을 놓고 수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벽돌 쌓기를 하면서 중력, 지렛대의 원리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같이 삼삼오오 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부에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들과 가끔씩 메일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위의 자소서는 같은 사람이 쓴 자소서이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사실을 바탕으로 꾸민 자소서’가 더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자소서 항목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주인의식’이다. ‘주인의식’은 능동적 행위가 수반되는 것으로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만 적은 자소서’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쓴 사람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수동적인 자세이다. 봉사단 팀장님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했을 뿐, 주인의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틀어 바꿔야 한다. ‘포기할 수 없었고, 방법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바꿔도 조건에 맞는 자소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실만 적은 자소서’에서는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느라 방법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다가갔다’라는 문장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꾸민 자소서’에서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그 뒤 바로 방법론에 대해 적은 것은 스토리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자신의 경험을 디테일하게 적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자소서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자소서는 항목에 대한 분석으로 다시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먼저 자소서 항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신의 경험을 요구하는 NCS 기반 자소서 항목)

분류	자소서 항목	공공기관명
	본인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발전(주)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경험(당시 발생했던 문제상황과 본인이 제시했던 해결방안을 함께 기술)을 작성해 주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제해결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어떤 과제 또는 직무가 부여되었으며,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2) 과제 수행 시 발생한 장애요인을 나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3)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어떠한지, 과제 수행 이후 본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지역난방공사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난관)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장소, 인물, 시간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금융감독원
	본인이 참여하여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팀 작업 중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몰입해 보았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한국전력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소통을 통해 Win-Win 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부발전

위의 항목을 살펴보면 경험을 요구하는 항목은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조건으로 나타난다. 이 항목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추상적인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과 느낀 것을 쓰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사실과정이 기술되어야 한다. 경험에 대한 항목을 분석하면 저절로 스토리가 형성된다. 이 형성된 뼈대에 살을 붙이고 입히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자소서가 탄생하게 된다. 즉 자신의 스토리를 사실대로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스토리에 자신에 생각을 투영시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기존 자소서 강의에 대한 부분을 뒤집는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자소서 항목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그리고 능력중심채용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 될수록 자신에 부족한 경험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라.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경험을 토대로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본인이 참여하여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팀 작업 중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몰입해 보았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라는 자소서 항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어려움을 예상’했다는 스토리이다.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으나, ‘예상’한 것에 초점을 맞춰 기술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례를 쓸 때, 어려움을 예상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나 팀 작업은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한 스토리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소서 항목〉

본인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는 것은 스토리를 쓰기 위한 개요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항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방식을 시도’했다는 문장을 통해 창조적 행위를 했다거나, 아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사례를 찾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착각을 한 것이다. 이 항목에서는 ‘기존과는’이라는 문장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다고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 다음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이라는 문장을 통해 비효율적인 전의 방법에서 개선을 통해 좀 더 효율화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다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에 했던 방식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2. 기존의 방식과 규정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비효율적이어야 한다.
3. 기존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4. 프로젝트나 경험에 대한 목적을 바꿀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분석을 하면 전체적인 스토리의 뼈대가 등장한다.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 나간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더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나가다 보면 자신이 왜 자소서를 쓰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대부분 자소서를 잘 쓰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글을 보는 눈과 글을 쓰는 능력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원자는 글을 보는 안목이 높은 편이다. 그런

데 본인이 높은 수준에 글을 쓰려고 하니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즉 글에 대한 안목이 높다고 해도 글을 쓰는 능력은 자신이 한 사고의 확장을 통해 글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 항목을 보면서 사고를 축소시켜 나간다. 즉 자소서 항목을 보는 순간 항목에 맞는 경험만을 찾는 행위에서 사고가 축소되는 것이다. ‘경험’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있을 뿐, 사고를 확장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확장이 되어야 글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항목을 분석하고 세밀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바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연습이다. 이런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에 했던 방식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손해보험회사 지역본부에서 신상품 판촉 업무에서 영업사원 물품시상을 진행하는 업무를 했다.
- 영업사원 물품시상은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 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물품을 주는 것이다.
- 기존에는 물품이 고객보다는 오히려 영업사원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2. 기존의 방식과 규정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비효율적이어야 한다.

- 내가 생각한 것은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시상하는 것이었다.
- 제품이 판매되는 시기와 판매되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을 기획해야 한다.

3. 기존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 물품시상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물품의 항목을 바꾸는 것에 주목했다.
- 계절상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성했다.

4. 프로젝트나 경험에 대한 목적을 바꿀 수는 없다.

- 목적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 보험가입도를 높이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 물품을 바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위의 사례를 묶어 다시 쓰게 되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하나의 자소서가 된다. 혹여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나는 인턴 생활도 안 해보았고, 어떤 일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위의 사례는 분해된 것을 정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 쓴 사례이기 때문이다. 학교 내의 실험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등 어떤

사례도 중요하지 않다. 이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행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험을 요구하는 항목은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특이할 점과 주목해야 할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소서 항목〉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난관)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장소, 인물, 시간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위의 항목에서 주목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과 ‘장소, 인물, 시간’이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어려운 것은 본인에게 닥친 어려운 경험을 찾아야 한다. 실수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자소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어 자체에 정의를 하는 것이다.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관념적인 단어이다. 관념적인 단어가 나타났을 때, 사례부터 찾는 것은 반드시 알맞은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라는 관념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난 어떨 때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그때 정의가 필요하다. ‘행복’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분석하면 자신만의 사례가 떠오를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이라는 문장에서 가장 관념적인 단어는 ‘어려움’이다. ‘어려움’을 정의하면 시간, 물적 자원, 인적자원에 난관을 겪거나 문제에 봉착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항목의 자소서 소개는 본인이 시간, 물적 자원 인적 자원에 난관을 겪은 사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 뒤 장소, 인물, 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면 이 항목의 조건이 붙는다. 더 나아가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면 당연히 그것을 극복하거나 극복을 못 했다면 배운 점이라도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물적, 자원, 인적자원에서 부족함 또는 어려움을 겪었다.
2.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밝혀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나 장소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4. 원인을 파악하고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5.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위의 항목을 분석하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적는 자소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적어야 한다. 특히 인물, 장소, 시간이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이나 결과가 디테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글쓰기에서 소위 뭉개기(?)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글을 뭉개다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로 모든 행동이나 방법을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라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위의 항목에서 상대와 소통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는데,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는 기술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소통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했다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에 대해 쓰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저의 노력을 아이들이 알아주었는지 아이들이 삼삼오오 저에게 모여들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다가가다’라는 문장을 풀어서 방법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난관)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장소, 인물, 시간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015년 10월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었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 몸이 아파도 끝까지 견디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복수전공하고 어려운 공부를 해왔지만 목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법시험마저 폐지되면서 더 이상 도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도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법시험이 안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했고, 그 결과 금감원에 지원해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거듭되는 불합격의 원인을 생각해보니 체력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이는 입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기간 공부를 하고 입사를 위해서라도 체력을 올려야 했습니다. 약한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하고 제대로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통해 체력을 올렸습니다. 무너진 체력을 극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에는 근육량이 늘었고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해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면서 노력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위의 자소서 소재를 살펴보면 ‘운동으로 체력을 올렸다.’라는 내용밖에 없다. 물론 ‘운동’이라는 소재는 위험한 소재이다. 흔히 제시되는 항목 중 하나인 “목표를 세운 것을 성취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십시오.”라는 항목에 대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체력을 올린 것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패한 사례, 어려웠던 사례를 들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자소서이다.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쓸 때는 원인과 결과 없이 “운동을 통해 살을 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 결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항목에 따라 소재의 유무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경험이든 거창한 경험은 필요 없다. 특히 NCS 기반 자소서의 경우는 본인의 역량을 정확하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험만을 쓰는 자소서 항목, 문제해결을 하는 자소서 항목이 더욱 쓰기 어려운 이유는 자소서를 쓰는 주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우리는 친분에 의한 사담을 나눌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심지어 좀 더 부풀려 이야기할 때도 많다. 자신의 이야기를 부풀려 말할 때일수록 더 디테일하고 재밌어진다. 자소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좀 더 부풀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있었던 경험을 상상력을 동원해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것을 문장으로 옮겨 적을 때, 빛이 나는 자소서가 되는 것이다.

③ 지식을 요구하는 항목

지식을 요구하는 항목은 NCS 기반 자소서로 바뀌면서 많이 나오는 항목이다. 특히 지원동기를 쓸 때도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마치 논술과도 비슷한 항목이 나온다. 이런 항목이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지원을 하면서 회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환경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좋고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작 공공기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는 채용하는 공공기관도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상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항목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본질적인 것을 묻는 것과 같다. 우리가 취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취업을 통해 자아실현이 될 것이라는 논리는 정확하지 않다. 자아실현은 취업을 한 사람이든,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자아실현이 될 가능

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면 자아실현 대신 사업군에 대한 비전이 존재해야 한다. 그 비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자소서 항목이다.

〈지식을 요구하는 NCS 기반 자소서 항목〉

분류	자소서 항목	공공기관명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인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한 장기보험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회사 지식	최근 예탁결제산업은 국경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등 경쟁환경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볼 때, 한국예탁결제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핵심 업무로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예탁결제원
	공단에서 지속 필요로 하는 인재를 크게 '미래사업 추진형'인재와 '조직가치 창출형'인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단 수행 보험사업 직무분야에 비추어 지원자께서 생각하는 '미래사업 추진형'인재와 조직가치 창출형'인재는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갖는 인재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공단 입사 후 이 두 가지 인재유형 중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인재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회사 지식	향후 10 년과 금융환경 변화 중 SGI 서울보증에 영향을 끼칠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전망하여 보시고, 이에 따른 회사의 필요전략과 본인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SGI 서울보증보험공사
지원동기 및 지식	본인이 알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내용(국내외 환경변화, 조직특성, 추진업무 등)은 무엇이며 그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중 어떠한 면에 이끌려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수협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100 년 수협은행'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2016 년 12 월 1 일에 새로운 은행으로 출범합니다. 입행 후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이루고 싶은 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은행
	그 외 대부분의 지원동기 자소서	

위의 항목은 기존에 분석하던 자소서 항목의 형태와는 많이 다른 자소서 질문이다. 특히 이 부분은 금융권 공기업, 사회·복지 공기업, 교통, 관광 공기업 등에서 많이 나오는 자소서 항목이다.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흐름이나 산업의 흐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과업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항목을 보면 금융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라는 주문이 나온다.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증기관이다.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금융환경, 경제 환경 등 외부환경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증권, 채권 등)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보증보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기업은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자소서 항목을 보면, 국민연금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항목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화되고 있는 시기에 꼭 필요한 장기보험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특징과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라는 내용이니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현황에 대해 공부하고 기술하라는 이야기기도, 무조건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항목이다.

〈자소서 항목〉

최근 예탁결제산업은 국경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등 경쟁환경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볼 때, 한국예탁결제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핵심 업무로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위의 자소서는 예탁결제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항목이다. 예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예탁자에게, 예탁자가 증권예탁원에 보관시키는 유가증권과 이 유가증권의 보관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탁 행위를 포괄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이다. 여기에서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정보는 예탁결제산업의 국경 간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모든 참가자인 투자자, 기업, 금융 중개기관들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이야기한다. 이를 분석해보면 예탁 시장이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에 예탁결제원이 어떤 사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적은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예탁결제에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한다.
2. 예탁결제의 경쟁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3. 현재 예탁결제원의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분석한다.
4. 세계적인 예탁결제업체의 방향성을 분석한다.
5. 예탁 결제원에서 세계적인 예탁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지식을 요구하는 항목을 분석해 보면 자신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보인다. 즉 공부범위가 보이는 것이다. NCS 기반 자소서로 바뀌면서 회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탁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한다.
 - 예탁결제 제도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예탁자들이 자기가 소유한 주원과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주원을 예탁하고 예탁계좌를 만드는 것이다. 주식을 사고팔 때는 주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탁계좌의 기재만 고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2. 예탁결제의 경쟁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탁결제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예탁결제회사들은 자국 내에서의 전통적 예탁·결제서비스 외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와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현재 예탁결제원의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분석한다.
 - 현재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통적인 증원의 발행·유통서비스는 물론 자산운용·증권금융·글로벌 증권거래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세계적인 예탁결제업체의 방향성을 분석한다.
 - 앞으로 유럽은 유로존 간에 회사들을 이용해 회사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미국 역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글로벌 회사의 회사채, 전통적 석유회사들의 증권 등이 발행되면서 예탁결제회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예탁결제원에서 세계적인 예탁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 세계적인 예탁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비롯한 국제 표준의 예탁결제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 또한, 퇴직연금인프라 구축, LTI 발급업무와 같은 경쟁력 있는 부가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안화 역외 허브구축지원을 비롯한 글로벌화 추진이 필요하며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예탁결제회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경을 통한 경쟁환경 도입과 국제정합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위의 내용은 지원자가 보고 있는 경제, 사회, 산업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다. 현재 세계 예탁결제시장은 회사 간, 사업 간의 증권업무가 서로 교류되면서 회사채, 유가증권 등 많은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무한 경쟁의 상태의 국면에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알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투자자, 기업, 금융 중개기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회사의 비전을 봐야 하는지 자신에 생각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알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예탁결제원의 방향이자, 보도자료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항목이다. 경제를 예측하라는 항목도 나타난다.

〈자소서 항목〉

향후 10 년간 금융환경 변화 중 SGI 서울보증에 영향을 끼칠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전망하여 보시고, 이에 따른 회사의 필요전략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 항목은 10 년간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한 뒤 SGI 서울보증에 영향을 끼칠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망해보라는 항목이다. 이것은 두 개의 질문이 합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향후 10 년간 금융환경 변화’를 밝혀내라는 것이다. 금융과 산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금융환경을 알기 위해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먼저 기술해야 한다. 이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로 접근해도 좋다. 저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접근해도 되고, 저금리, 저출산, 기존 산업의 공급과잉, 제 4 차 산업혁명 등 현재 경제의 흐름을 통해 10 년 뒤 금융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써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SGI 서울보증에 끼칠 영향에 대해 써야 한다. 이는 회사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위에서도 기술했듯이,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증기관으로 여신상담, 서민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산업을 파악하는 능력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를 파악한 다음 어떤 외부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해 주어야 하고, 본인의 역할은 반드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향후 10 년간의 금융환경 변화 중 SGI 서울보증에 영향을 끼칠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전망하여 보시고, 이에 따른 회사의 필요전략과 본인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현재 한국은 저성장, 저금리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저금리와 저성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금융들은 저금리에 대비한 현금자산확보와 신용도 회복을 중심에 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GI 서울보증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화는 채권, 주식, 경제성장이 아닌 기업의 현금자산보유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자산 보유율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이때, 개인의 금융 자산 보유율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선진국의 개인자산 보유비율 중 금융자산이 미국은 70%, 일본은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GI 서울보증은 익숙하지 않은 저성장 기조에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금융자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산업은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역시 자신의 신용도와 채권발행 등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GI 서울보증은 개인이 금융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지원보증을 넘어 전·월세에 대한 증권화와 개인 채권 발행 보증에까지 다양한 상품전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기관론] 등의 학교 과목을 통해 금융시장별 금융기관 및 시장현황 조사, 그리고 금융시장별 주요 특징 및 이슈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배웠습니다. SGI 서울보증에서 현금 자산 보유를 늘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제가 배운 다양한 상품을 적용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서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위의 자소서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 뒤 현금자산확보와 신용도 회복을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 개인자산 보유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통해 서울보증이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것까지 연결해 좋은 자소서를 기술했다.

처음 정부에서 NCS 를 홍보할 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공공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상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다. 이를 학문으로 하면 공기업론이라고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깊이 있는 학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해 지식을 정리한 뒤 산업군으로 분류해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발전 공기업이라면 발전 산업과 전기세, 그리고 앞으로 발전 산업의 방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권은 경제·산업의 동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융산업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원동기를 쓸 때 공기업의 공부는 필요하다.

3. 지원동기와 성장배경의 개요를 작성하라.

- 청킹-업(Chunking-Up)을 시작하자.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이 지원동기이다. 지원동기는 자소서 항목을 분석한다고 해도 잘 쓰지 못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청킹(Chunking)이다. 이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기억 대상이 되는 자극이나 정보를 서로 의미 있게 연결시키거나 묶는 인지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신이 하는 생각을 묶어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에서 한 자소서를 분해하는 방법은 하나로 묶여 있는 사고를 분해시켰기 때문에 청킹-다운(Chunking-Down)이라 한다. 반대로 지원동기는 분해되어 있는 사고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청킹-업(Chunking-Up)이라고 한다. 청킹-업은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본인이 상상하고 있는 실체화되지 않은 사고를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사고를 세밀하게 할 수 없다. 어떤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는 추상된 개념으로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된다. 이제부터 그다음이 문제이다. 추상된 개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바로 '상상'의 능력이다. 인간이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생산물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보자. 이때 우리는 놀라운 상상력이 발현된다. 본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소비 욕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투자를 통해 돈을 더 벌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상상에서는 다양한 욕망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다. 즉 상상은 로또에 당첨되는 하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상상의 연쇄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집, 차, 통장 불리기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에 실재하는 것들과 연결시켜 상상을 구체화 시키고 있는데 이 작업을 '청킹-업'이라 한다.

지원동기도 이와 같다. 단순하게 '취업을 해야 한다.'는 열망이나 '공기업 취업을 해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간다면 어떤 산업을 택할 것인지, 그중에서 하나의 공기업을 간다면 어디를 제일 입사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본인이 왜 취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유명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라캉은 ‘우리는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라고 욕망을 정의했다. 이 명제는 아주 심오하고도 불편하게 만드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 또는 남이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이 부분을 지워내야 하는 것이다. 오롯이 본인이 왜 취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공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 공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과 괜찮은 연봉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왜 안정된 직장과 괜찮은 연봉이 필요한 것일까? 당연히 자신에 미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갈 공기업에도 당연히 비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지원동기는 상상에서부터 시작해 회사분석이라는 구체적인 숙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매끄러운 생각과 글이 나오는 것이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사유·상상·실천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사고를 세밀하게 하고 필요한 공부로 자신에 빈 곳을 메우게 된다면 충분히 지원동기를 잘 쓸 수 있다. 그렇다고 사고만 하면 안 된다.

‘공기업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다음 할 일은 “왜 공기업을 가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이다. 이 작업은 반드시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해야 한다. 단순히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생산물이 나올 수 없다. 노트에 적는 행위로 인해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에 적는 연습이 필요하다. 공기업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을 했다면, 그다음에 어떤 공기업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이 어렵다. 이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바라는 것,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공부까지 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다음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거친 생각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질문들과 갑을 통해 ‘청킹-업’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동기 청킹-업〉

1. 나는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가? 공기업? 대기업?

- 나는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2. 왜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가?

-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 공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3. 어떤 공기업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가? 그리고 어떤 공적인 일을 해보고 싶은가?

- 큰 공기업일수록 나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4.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많다. 그중에서도 나는 국민의 복지에 가장 관심이 많다.

5. 국민의 복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민의 복지는 국민이 건강하게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나는 사회·복지 공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중에서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위에서 인터뷰를 한 친구는 사회·복지 공기업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가짐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듯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은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글은 사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본인의 생각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자,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 번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고찰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는데 지원동기 같은 고차원적인 글을 쓸 수 있겠는가?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막연히 알고는 있을 것이다. 많은 글을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박에 글을 써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소서를 쓸 때 항상 좀 더 쉬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책도 쉬운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좀 더 쉽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사고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글은 쉽게 써질 것이다. 무조건 어떤 법칙에 의해 글 쓰는 법을 따라 하고 합격 자소서를 따라 쓰는 방법은 버려야 한다. A~Z 까지 무조건 이 법칙에 따라 쓰면 합격할 수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 합격하는 법칙은 없다. 단순히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그래서 절대 원칙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보통 작가들도 필사라는 것을 한다. 필사는 자신의 문체를 좀 더 다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무조건 필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다듬고 사고의 외연을 확장한 후에 필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작정 따라 쓰지 말고 먼저 사고의 외연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길 바란다.

- 지원동기의 논리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사고를 세밀하게 만들었다면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논리적 구성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사고 후 가장 필요한 것이 논리적 구성을 하는 것이다. 지원동기는 ‘우리 회사의 지원동기는 무엇이고, 입사 후 어떻게 알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십시오.’라는 항목에서부터 한국공항공사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내용(국내외 환경변화, 조직특성, 추진업무 등)은 무엇이며 그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중 어떠한 면에 이끌려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소서 항목까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다양한 형태의 항목이긴 하지만 사실 항목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같다. 회사에 대한 관심, 사업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관이나 경험을 통한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지원동기를 쓰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 구성을 알기 위해서 먼저 논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논리란 원인과 과정 결과를 순서대로 적는 것이다.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개념과 판단, 추론의 과정을 거친다. 추론은 어떠한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밝히는 것이다. 지원동기에서 추론의 과정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직업관과 회사의 비전을 연결시킬 때 반드시 타당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논리는 시간, 공간, 사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드시 정답이라는 필연의 영역에 다다르게 해주는 것을 논리라고 칭한다. 즉 본인이 회사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필연을 만드는 것이 지원동기이다. 인연 등으로 인해 갑자기 회사에 매력을 느껴서 입사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의 영역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논리의 종류는 귀납적 추정과 연역적 추론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지원동기를 쓸 때는 연역적 추론의 방식을 택한다. 이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역적 방식으로 자소서를 쓴 것은 많이 없다. 대부분이 귀납적 추론의 형태로 지원동기를 적고 있다. 이유는 대부분 경험을 열거하면서 자신이 이 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이거나 전공 공부를 하면서 회사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약적인 논리를 대는 불완전한 귀납법을 쓰면서 지원동기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지원동기

를 쓰기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비약적인 글이 나타난다. 이래서는 자신이 만족할만한 지원동기를 만들 수 없다.

연역적 추론은 이럴 때 필요하다. 연역 방법은 전제(가정)가 결론을 100% 보장해주는 추론 방식이다. 그렇지만 경험에 있어 보편적인 원리들은 수학의 공식처럼 100% 결론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를 보완하여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 회사의 비전이나 회사 사업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에 대한 비전과 직업관이 필연에 묶여 있어야 한다. 이 직업관이 전제에 대한 결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 반박된다면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거시적인 접근에서 미시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필연의 영역을 만드는 논리 전개를 통해 지원동기를 만들 수 있다.

〈잘못 쓴 지원동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사한 지원동기를 공단업무 특수성에 맞게 기술해주세요.

대학 시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만 오고 다시 찾지 않는 봉사활동 참가자들로 인해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매주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의 사소한 고민이라도 들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 개월이 지난 후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항상 미소로 반겨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지키고,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법무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법무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 배려의 마인드로 지역지부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원이 되어 보호 대상자들과 만날 때도 약속을 지키고,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에서 보호 대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 최고의 법무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고쳐 쓴 지원동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사한 지원동기를 공단업무 특수성에 맞게 기술해주세요.

한국사회는 현재 불신과 양극화 등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더욱 증폭되어 상대적 박탈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해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시키고 사회적 안전을 구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대학 시절부터 지역아동센터, 지역교도소 멘토링, 미혼모 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일회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고 싶습니다. 그중에 범죄자, 노숙인 등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가장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범죄와 노숙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 중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사활동에서 익힌 소통능력과 학교에서 익힌 기획 및 행정 프로그램 숙련능력을 통해 보호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의 자소서와 고쳐 쓴 지원동기의 차이점이 바로 불완전 귀납을 통해 비약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자소서이다. 물론 얼핏 보면 그런대로 쓴 지원동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면서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때 ‘마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굉장한 우연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형태이다. 즉 필연적이고 논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연을 과장해서 쓴 글이다.

원래 우리가 한 경험은 취업을 위해 한 경험이 아니다. 우연히 한 경험을 필연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을 만들기 위해서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시적 접근에서 필요한 것이 연역적 구성이다. 위의 고쳐 쓴 지원 동기처럼 말이다.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사회·복지의 영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회사의 목적과 비전을 밝히면서 자신이 관심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된다. 이런 작업이 바로 ‘필연’의 영역이다. 위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일회적인 봉사보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중 가장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범죄자, 노숙자의 사회 복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회사의 비전, 목적 그리고 경험을 모두 ‘필

연'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해서 구성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진다.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의 사업군에 대한 경제·사회에 대한 분석

▶ 회사의 사업에 대한 내용 ▶ 본인의 직업관과 자신의 역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

이처럼 지원동기에 대한 구성은 대단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의 사업군과 관련된 경제·사회에 대한 분석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환경에서 내부 환경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기업이다. 이유는 공공기관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 공공기업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변화를 예측해야 사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업군의 경제·사회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자신의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자신이 관심이 있는 회사의 사업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본인의 직업관과 '필연'적으로 연결시켜 주면 지원동기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회사의 사업군과 관련된 지식, 공공기관의 역할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정리하겠다.

4. 먼저 자신의 직업관과 인생관을 정리해보자.

- WDEP 기법으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정리해보자.

자소서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직접 묻는 항목도 있고, 지원동기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야 하는 항목들도 있다. 필자가 항상 자소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어요.”라는 말이다. 그럴 때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묻는다. “보수적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진보적이라도 괜찮나요?”라는 말이다. 요즘 대부분 관점을 가지라고 말하면 정치적 관점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생관, 직업관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이분법적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생관이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인생관은 많이 배운 철학자나 고명한 저명인사들이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인생관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관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란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삶 속에 인생관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생관이라고 하는 거창한 담론처럼 보이는 이것은 자소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정확하게는 자신의 관점을 아는 역할을 한다.

인생관을 써야 할 때에는 막연한 기분이 들것이다. 한 번도 누군가가 진지하게 물어본 적도 없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인생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방법을 통해 인생관이나 직업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요법’이라는 심리학의 분파에서 차용할 수 있다. ‘WDEP’라고 명명되는 이 기법은 자문자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신의 인생관이나 직업관을 찾기에 탁월한 방법이다. 이 방법을 쓸 때는 반드시 노트에 적는 연습을 해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기보다는 볼펜을 들고 써보자. 손이 움직이면 머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구름처럼 가려져 있던 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먼저 W 는 ‘Want’의 약자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 바람, 지각을 탐색하는 이 기법은 자신에게 4 가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탐색하고, 이제까지 희미하게 알고 있던 자신의 바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앞의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하는 질문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욕구가 어떤 것인지 구분하여 아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하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내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조금 심오한 질문이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 이 질문은 당신의 페르소나까지 고려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자신에게 원하는 모습과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하며 살아간다. 주위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히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찰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에 대해 원하는 그림과 그림 속에 있는 나의 근본적인 욕구를 확실하게 알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나는 어떤 시각으로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실제 가치관을 찾은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자.

1.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 인생관: 나는 잘 살고 싶다.
- 직업관: 돈을 많이 벌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

2.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인생관: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 현재 불안감이 너무 많아 이 불안감부터 없애고 싶다. 그래서 가정, 직장을 가지고 싶다.
- 직업관: 삶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균형 있는 삶이란, 직장도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3. 사람들이 내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생관: 부모님은 내가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바라고 있다. 친구들은 나와 계속 대화하고 싶어 한다.
- 직업관: 부모님은 공기업에 들어가길 원하신다. 친구들은 대화를 잘 하니 민원 업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4. 나는 어떤 시각으로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는가?

- 인생관: 낙관적이다.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 직업관: 불안하다. 현실적으로 내가 공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적어가다 보면 어떠한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되어 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작업이다. 노트에 D 라고 적어보자. D 는 Doing 에서 가져온 말로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알아보는 단계로 심리학에 서는 보통 이것을 전 행동 탐색하기라고 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 고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는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했던 행동을 검토하여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바꿈으로써 그동안의 자신이 모호하게 알고 있던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사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 걱정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 먼저 공기업을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공기업에 대한 자료 조사를 준비했다.
- 설명회, 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공과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 현재 전공 공부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금융권 공기업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 NCS 직업기초능력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 작성했다면 그다음부터 평가의 항목에 들어간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추상적인 것에 들어간다. 인생관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평가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노트에 E 라고 적어보자. E 는 Evaluation 의 약자로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본인이 마음의 근간에 있는 욕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근거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묻는다. 첫 번째 항목은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혹은 실현 가능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꿈을 꾸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감 없는 목표와 인생관은 허공에 대는 외침과 같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런 식으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자신의 성찰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W 에 나타난 질문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세상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공공기관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윤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성을 가르는 기준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도덕, 법률을 넘어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양심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질문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질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면 이를 노트로 써 놓고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보자.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자.

1.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혹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

-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든 편안한 삶은 없는 것 같다.
- 편안한 삶은 실현 가능한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단순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한 것 같다.

2. 내가 그런 식으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 긍정적인 생각은 많이 도움이 된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현실적인 불안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안을 지우기 위해 취업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기도 한다.
- (그렇다면 불안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잘 생각해보면 소속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의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세상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 지금까지 공기업 준비하는 데 있어 행동한 것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진정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종합해보면 공기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 같다.

- (그렇다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추상적이라도 말해보라.) 오히려 나는 일과 생활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 (균형 잡힌 삶은 무엇인가?) 일이 나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 (당신의 삶을 왜 일이 침해하면 안 되는가?) 잘 모르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이 삶을 침해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은 이 세상의 규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오면 더 복잡해질 것이다. 전혀 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하다. 이 작업은 간단해 보이지만 대단히 복잡한 작업이다. 이유는 당신의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기업’이라는 것에 맞춰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절대 내가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가치관을 찾을 수 없다. 다시 생각해보자. 공공기관 취업은 당신에게 목적이 될 수 없다. 당신의 가치관을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공공기관 취업을 하지 말하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이므로 사회적 관심, 윤리성, 경제적 흐름 등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설정하면 그에 대한 하부구조로 공기업을 연결시키면 된다는 뜻이다. 자소서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어떤 프레임에 본인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가치관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볼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조셉과 해리, 두 심리학자에 따르면 ‘조해리의 창(Johari's Window)’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두 가지 관점을 통해 파악해 보는 자기 인식 또는 자기 이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WDEP 방법이 조해리의 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시 W 로 돌아가서 정리해야 한다. 위 학생과의 인터뷰를 다시 W 로 돌아가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 'W' again

1.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 인생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다.
- 직업관: 일이 나의 삶을 침해하면 안 된다.

2.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인생관: 나에게 일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고, 삶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삶을 즐긴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 직업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 그중에서 나의 전공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전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3. 사람들이 내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생관: 부모님은 말로는 독립을 바라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취업을 하고 싶다.
- 직업관: 친구들은 나에게 대화를 잘하기 때문에 민원 업무도 괜찮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기획도 괜찮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4. 나는 어떤 시각으로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는가?

- 인생관: 낙관적인 것은 내가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직업관: 불안하다. 현실적으로 내가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 'D' again

1.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 독립을 위해 공기업에 대한 자료 조사를 준비했다.
- 내가 독립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여행도 갔다.
- 설명회, 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공과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 현재 전공 공부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금융권 공기업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 NCS 직업기초능력도 준비하고 있다.

■ 'E' again

1.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혹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

- 독립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 독립을 하고 싶은 이유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겪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독립을 하고 싶은 것이다.

2. 내가 그런 식으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 너무 이상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역량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3. 나의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세상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 여행을 다녀온 것은 많이 도움이 되었다.

-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은 도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또 다른 형태의 가치관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 학생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물론 모두 다 운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발견하기 위해 눈물 한 번쯤 흘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학생의 가치관은 “스스로 독립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치관은 변한다. 하지만 이 학생의 가치관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학생의 기본적 본질은 ‘혼자 서는 힘’이다. 결국 이 친구의 내재적 가치관은 ‘독립’과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가치관을 발견한다면 사실 어떤 자소서 항목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가치관을 발견한 이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보자.

성장과정(가족, 학창시절, 사회경험 등)을 통하여 본인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경험과 이에 따른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일찍부터 독립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일찍 독립을 하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 대한 독립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규율을 심했고 반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20 대에 와서 저는 무엇을 혼자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먼저 겁을 내고 있는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에게 여행의 의미는 여행에서 무엇을 느끼기보다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행의 계획에서부터 여행경비까지 모든 것을 저 혼자서 결정하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6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700 만 원을 모아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 개월간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번 돈을 통해 제가 원하는 국가를 다니고 원하는 것을 보니 한 걸음 걸음이 소중한, 눈에 담기는 모든 것이 오롯이 제

것 같은 마음이었습시다. 그 후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갈 때 많은 책임감도 따르지만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배경과 과정 역시 자신의 가치관을 녹여 쓰는 항목이므로 가치관을 발견하면 위와 같이 솔직하지만 세련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역량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이 P이다.

P는 Plan으로 어느 정도 가치관을 발견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채워보는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계획이 실천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고 취업에 대한 목적성도 상실하게 된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역량(지식, 기술, 태도)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욕구가 충족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 사람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취업하는데 모두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취업은 생존이자, 소속되는 것이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자유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즐거워야 하고 취업하는 과정 자체를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다음은 본인에게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자면 무턱대고 “난 토익 950 점을 넘길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쉬운 계획이 아니므로 취업에 지쳐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조금씩 실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실천할 때는 어떤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난 취업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어.”가 아니라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할 거야.”라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기간, 종류,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본인의 역량과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서 가장 필요한 역량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검정능력 자격증, 어학점수): SPEC
- 금융권 공기업에 대한 자료: 정보 취합능력
- PT 동아리 활동: 문서작성능력, 발표능력

- 학교 전공 프로젝트: 협력활동, 리더십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 전공 공부의 부족함: 경영학 중 마케팅과 재무관리 과목의 부족
- 논술 과목의 부족: 세계 경제 동향과 시사적 내용 부족
- 자소서 부족: 글쓰기의 어려움
-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채우기 위한 노력

앞으로 해야 할 것

- 전공 공부: 하루에 인강 세시간, 복습 한 시간, 기간 4개월
- 논술 공부: 신문 사설 스크랩 및 읽고 필사 한 시간
- 자소서 공부: 매일 자기 전 오늘 한 생각 20분 동안 쓰기
- 주말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

위와 같이 자신의 계획을 쓰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정리하다 보면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나오면서 좀 더 취업에 가깝게 된다. 자소서를 쓰는데 이것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겠지만 자소서를 쓰는 것은 첫 단추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출발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WDEP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 직업관, 역량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너무 지치지 마라. 생각을 확장 시키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의 성찰을 해보지 않는다. 마땅히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되기도 한다. 이 과정은 변화된 포인트를 찾는 연습이다. 여기까지 끈기 있게 했다면 자소서의 반 이상을 쓴 것과 다름없다. 그다음은 공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채우는 일일 것이다.

5. 회사 분석보다 먼저 사업군에 대한 공부가 필수이다.

- 공기업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자소서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소서를 쓰다 보면 자소서가 비어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려면 공기업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필자가 공기업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자소서에서 쓸 데도 없고, 응용도 불가능할 텐데 왜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익’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자소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기업과 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자소서를 쓰게 되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글을 쓰게 된다.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① 공기업은 무엇인가?

기업은 소유 주체에 따라 크게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성과정과 그 의의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1760 년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하면서 근대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초기의 기업은 모두 사기업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모든 경제 활동은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하며 자유 방임주의에 대해 논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가 부를 가지기 위해 국가는 세 가지 기능만을 가져야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 외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경제는 원활하게 움직이며, 국민은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된다. 셋째, 국가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사업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사업이란 도로·항만·운하 등의 토목건설사업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전기, 철도, 항공 등도 여기에 들어간다.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민간)이 투자하면 이윤을 얻을 수 없어서 외면하는 경우에 국가가 공공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고전 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모두 사기업의 영역에 속하고, 이윤을 내기 어려우면서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 분야는 공기업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증기기관, 제철기술과 방직기계를 발명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산업혁명의 산물이고 사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가 되는 셈이다. 기업이 처음 생성되기 시작한 이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기업의 개념도 변화·발전하였다. 기업의 고전적 개념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였으나, 현대적 개념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이를 고부가가치의 중간재와 최종상품으로 바꾸는 전환 단위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기업은 사기업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투자하면 이윤을 얻을 수 없어서 외면하는 경우 정부가 간섭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공기업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도로·항만·항공·철도·전기 등은 왜 개인이 투자하면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 이 사업은 자연적 독점사업이라고 한다. 자연적 독점사업이란 한 기업에 사업의 독점권을 줄 때 오히려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자연적 독점성을 갖는 사업이다. 대부분 산업은 상품의 가격이 싸지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려면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적 독점사업인 공익사업은 경쟁을 시키면 생산원가가 오히려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적 독점사업은 사회 전체가 시장 안에서 하나의 공급자만을 요청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자연적 독점성을 갖는 사업은 수도 파이프, 철도, 송전, 배전선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시장에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중복시설이 되므로 원가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공익사업은 대부분 공기업으로 경영하고, 사기업이 공익사업을 경영할 때는 정부가 그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20 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는 시장에 경제를 맡기고 국민에게 치안·교육·국방 등의 행정서비스인 순 공공재만을 제공해도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기·수도·가스·서민 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과 항만·공항·고속도로·위성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할 것을 점차 요구하게 되어 행정서비스 외에 기업적인 서비스(준공공재)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0 년대의 대공황도 국가의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선진국들은 거대한 공공토목사업에 착수하여 실업자를 흡수하였고, 그들의 소득은 즉각 구매력으로 연결되어 공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공황은 디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공기업이었다.

미국의 뉴딜정책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케인스는 스미스의 고전 이론을 수정하여 1936 년에 간행한 <고용·이자·화폐의 이론>을 통해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기업 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 활동을 개인에게만 맡겼던 자유 방임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체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저성장 기조에 있는 한국이 공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기가 호황이거나 인플레이션 상태면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에 주목한다. 호황기에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하지만 불황 혹은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민간의 수요를 창출해야 하므로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렇듯 시장실패의 여파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공기업은 공공재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실패의 방파제 역할도 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지난 1 세기 동안 시대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하고 발전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은 개념상으로 공기업이 분명하나 공·사 혼합 기업인 경우 정부 지분율이 몇 %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보고 몇 % 이하이면 사기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정부 기관이 늘어나고 재화의 가짓수가 계속 늘어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정부 기관을 기업적인 생산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의하면 공기업이란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이다.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공공단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하고 소유란 공공단체의 지분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3 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생산적인 주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갖는 주체를 말한다. 생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매출액으로 경상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공기업의 정의에 따르면 코레일과 한국전력공사 등은 전형적인 공기업이다. 철도서비스나 전기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만청, 잠실운동장, 국공립학교, 보건소 등은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준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기업으로 볼 수 없다.

② 공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는 다른 조직에 비해 강력한 제재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는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사회 전체의 봉사자 기능도 있다. 공기업 또한 사회 전체의 봉사자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전이 전기 생산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이 질 좋은 전기를 소비하며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초기의 국가는 국가가 치안과 국방만을 책임지는 야경국가의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고 영토와 국민이 늘어날수록 국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고,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가는 비대해졌다. 비대한 국가는 부정과 부패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행정시스템이 복잡해져 통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기업을 통해 공공복리의 투명성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가관은 크게 서양과 동양으로 나눌 수 있다. 서양의 국가관은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나뉘는데, 일원론은 한 가지 관점으로 국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원론적 국가관은 사회적 형태와 법적 제도의 형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서양은 일원론적 관점부터 발전하여 국가관의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다. 일원론적 국가관은 국가를 사회학적·경제학적·법학적 국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국가론은 국가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보지 않고, 국가의 기능에 따라 작용하는 관계로 본다. 경제학적 국가관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서 출발한다. 마르크스는 ‘인류발전 5 단계설’에서 생산체제와 관계에 따라 국가의 기능과 체제가 변화한다고 보았다. 원시공산제를 거쳐 고대 노예사회, 봉건영주사회를 형성하였고, 보나파르트 주의(중간계층이 봉건제도로부터 자신의 해방을 수단으로 하여 만든 국가 형태)를 형성하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자의 소외로 인해 일정한 생산 관계의 유지가 힘들어지면서 궁극적으로 공산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견해이다. 이렇듯 경제학적 국가관은 일정한 생산 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국가는 일정한 생산 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 수출을 통해 생산 관계를 유지한다. 만약 수출이 저조하다면 한국은 생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의 담합, 저성장 기조에 의해 한국 경제가 주도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통해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생산력을 높일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가 능력보다는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는 탓에, 실력은 있

지만 자본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 기준을 투명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학적 국가론은 법적으로 통일된 질서가 국가의 특질이며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의해 관점이 달라진다. 국가를 군주의 권리객체로 본다면 가산국가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독재적인 봉건사회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국가이다. 국가를 국내법의 주체로서의 법안으로 보는 학설도 있다. 이것을 ‘국가법인설’이라고 한다. 국가법인설은 주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으로, 현대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주권이 국가에 있는 형태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국민 스스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은 투명경영을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존재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투명경영을 하여 간접적인 주인인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올바른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다음은 동양의 국가관이다. 동양의 국가관은 크게 노장사상에 입각한 국가, 법가의 국가, 유교의 국가로 나눌 수 있다. 노장사상은 소국과민(小國寡民) 사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소국과민이란 국가가 간섭하는 일없이 규모가 작아질수록 올바른 국가의 형태를 갖춘다는 것이다. 또한, 작은 국가일수록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과 욕망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근원이므로 욕심이 날 만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고르게 분배하면 욕망이 생겨나지 않으므로 백성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가의 국가란 법가와 한비자가 주장한 사상으로 인위적인 강제(법을 통한 통제)와 부국강병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법으로 통일되어 있고, 강한 국가가 되면 백성들은 안정을 찾는다는 주장이다. 유교의 국가는 공자, 맹자, 순자 등이 주창한 국가관으로 중용의 도를 구현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중용의 도라는 것은 정치를 함에 있어 치자(治者)들은 중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용의 도를 펼쳐야 백성이 안정될 수 있고,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가는 국민을 안정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도 국민의 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공기업의 운영은 국가주도형 사업이지만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너무 정부 정책에만 치우치는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업은 자율성을 잃고 정부의 정책만을 따라가는 좀비형 공기업으로 변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중용의 도를 잃지 말고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서 올바른 경영을 해야 한다.

공자는 덕치주의와 예치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일에 명분을 올바르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치하는 사람은 민심을 보호하고 얻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역시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맹자는 위의 말과 더불어, ‘백성이 편안해지려면 백성이 배가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의 경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공기업은 물가안정, 국민 생활의 증진,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전 세계의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서 공기업 역시 변화해야 한다. 국가는 공기업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공기업 역시 변화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경제에 안정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은 국가의 소유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명경영을 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통해 여론 수렴의 기능도 가져야 한다.

③ 공기업의 사상적 배경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공기업은 공공재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공공재는 사회간접자본과 국가 공공재로 나눌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어떤 사회단체나 이익집단,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본을 투입하여 경제 활동의 주체를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국가 공공재란 국방, 교육, 치안 등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화를 뜻한다. 즉, 국가 공공재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공기업은 대부분의 공공재를 다루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국가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수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국민이 공공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은 공익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재화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은 벤담의 공리주의이다. 벤담은 사회적 정의는 공리성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하며, 아무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공리성과 정의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공기업은 공리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공기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행위적 공리와 규칙적 공리로 나눌 수 있다. 행위적 공리는 공익을 위한 유용성의 유무로 판단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

름에 대한 궁극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척도를 적용할 때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할 것인지, 행위의 규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행위 규칙으로 하여금 개별적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행위적 공리에 있어서 개별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각각 대안의 행위에 직접 적용되며 옳은 행위는 다른 어떤 행위보다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행위는 다른 어떤 행위보다 국민에게 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지,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유용성을 따져가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규칙적 공리는 하나의 행위가 타당한 행위 규칙과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때 행위에 대한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따라서 구속력을 갖는 참된 규범적 윤리 체계는 이 규칙들에 의해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하면 다른 규칙을 따를 경우보다도 더 큰 본래적 가치와 더 적은 본래적 비가치가 초래될 규칙의 집합이다. 규칙에 의해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긍정적 규칙 또는 부정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긍정적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행동유형의 속성들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옳은 행위는 규칙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고, 그른 행위는 규칙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 규칙이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긍정적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 규칙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그 규칙이 금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옳고 그름은 규제하는 행위 규칙에 따르는 행동 또는 그것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때 우리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규칙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규제하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규칙공리주의자는 “규칙이란 일반적으로 그것을 따를 때가 다른 어떤 규칙을 따를 때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 쾌락과 더 적은 불행이나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규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정의란 행위적 공리를 중심으로 공공재가 재분배되어야 하며, 국민의 유용성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 인은 규칙적 공리를 따라야 한다. 공기업에 필요한 규칙에 의해 공공의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공기업의 재분배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부분을 다 분배해야 한다. 흔히 공리주의와 관련하여 다수와 소수 중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말이 다수가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공동의 이익이 아닌 편익만이 존재하는 재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공재라면 당연히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전기는 모든 국민이 쓰는

것이고, 한 명이라고 전기 사용에 관해 불평등을 느끼게 되면 공공재의 재분배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기업이 다루고 있는 모든 재화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다. 모든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가지고 있는 능력(부의 상속, 재능 등)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을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이 공기업이 필요한 사상이다. 가령 한국 사회에서는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모두가 의료라는 재화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다. 그런데 부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같다면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가격의 차이를 뚝으로써 결과를 같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 또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면 사회는 평등해질 수 있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사회는 우연에 의해 얻은 능력들이 존재한다. 부모의 부, 유전적인 능력은 모두 우연에 의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사회가 우연에 의한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면 능력을 갖춘 소수는 사회에 참여하게 되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며 사회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가령 부모의 부를 통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부모의 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참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업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차등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기업은 공리주의 사상을 통해 재화를 재분배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실시하면서 모든 국민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부를 재창출할 수 있게 된다.

-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최근 가장 큰 이슈는 '4 차 산업혁명'이다. 4 차 산업혁명에 관심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 공기업 군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4 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기업 역시 이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4 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슈밥, 제러미 리프킨, 리처드 서스킨드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 학자들은 이 산업혁명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필자의 기억으로도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 3 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엘빈 토플러의 <미래쇼크>, 마누엘 카스텔의 <인터넷 갤럭시>, 하워드 라인골드의 <스마트 몹> 정도가 다였다.

그런데 유독 4 차 산업혁명은 매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해 다가가기 위해 1 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1 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증기기관은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인간이 믿고 있던 인간의 근력이 배신당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혁명 전의 경제는 보호주의 경제, 또는 중상주의라고도 불리는 형태의 경제였다. 국가의 주도로 국내에서는 길드를 만들고, 그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했으며 부르주아로서의 위상을 떨쳤다. 즉, 산업혁명 전에는 기술자가 대우를 받았다. 인간의 기술, 근력을 배신한 것이 바로 1 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나 다를까 길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산업혁명 전의 주역이었던 기술자들은 '러다이트 운동(기계파괴운동)'을 통해 그들의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1 차 산업혁명은 막을 수가 없었다. 즉 헤게모니의 패권이 바뀌게 된 것이다. 산업혁명 후 인간의 근력은 무시되고, 분업이 나타났으며 자본가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었다. 산업혁명 후 세상은 급격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자유주의를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사상적으로도 많이 달라졌다. 산업혁명 전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소명 의식이 기저에 깔렸었다. 국가주의의 본질이기도 한 이것은 'OOO 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었다. 산업혁명 후 이러한 의식은 애덤 스미스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푸줏간 주인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의 원천이라는 명제를 내어놓았다. 중상주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애덤 스미스도 당대의 대단한 혁명가였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 후 인간의 이기심에 초점을 맞춘 사상들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합리주의이다. 합리론, 경험론, 관념론 등이 나타났고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다. 하지만 전쟁, 기아 등은 그치지 않았고, 합리주의와 대립각에 서 있는 염세주의를 동반한 낭만주의 역시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사상이다. 결국, 산업혁명 후 인간은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2차, 3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차 산업혁명과 닮았기 때문이다.

2차, 3차 산업혁명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1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삶이 바뀐 속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라고 한다. 전기가 발명되면서 우리의 삶은 밤이 없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는 1차 산업혁명에서 형성된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를 더욱 가속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토는 점차 빠르게 도시화되었고, 길거리에 노동자는 급증하였으며, 공급의 중심에 기업이 서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그리 크게 낯설지 않았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자본가도,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도 이를 반대할 리 만무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공급 중심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자본이 축적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결국, 2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세계관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다. 물론 2차 산업혁명보다는 인류의 세계관을 흔들기는 했지만 1차 산업혁명처럼 인류가 믿고 있던 본질을 흔들지는 못했다.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사회, 네트워크 사회라고도 한다. 이를 주장한 학자는 앨빈 토플러, 마누엘 카스텔 정도였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2차 산업혁명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물이 나타난 정도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 보드리야르가 주장한 ‘기호소비사회’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급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축적된 자본 위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얻고 물건을 소비한다. 즉, 재화의 소비가 가속화된다. 결국, 소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호’, 즉 어떤 물건의 이미지를 통해 재화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 발전사회에서 지식은 휴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식의 종류에는 선형 지식과 점형 지식이 있다. 선형 지식은 암기에 의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이다. 점형 지식은 인터넷에 산개되어 있는 지식들을 이야기한다. 이를 연결하는 과정은 자신의 스토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암기가 필요 없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 바로 인터넷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아닌가요?”라는 반응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 AI의 딥러닝을 통해 전 인류가 AI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사회를 일컫는다. 작금의 사회를 1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비교하자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원리와 뉴커먼의 증기기관 정도일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한다. 미래학자들이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명제를 계속 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미래의 이야기일 뿐 현실의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3차 산업혁명으로 돌아가 보자. 인터넷 혁명이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우리에게 형이상학적으로 다가오는 말이 생겨났다. 바로 ‘창의, 창조, 혁신’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인터넷 사회에서 지식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생산의 영역이라는 말과도 일치한다.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다른 영역들과 조화시키는 것이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반과 사상들을 모두 바꾸지는 못했다. 아주 점진적인 변화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3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해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이는 오늘날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도 맞물린다. 3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합리주의에 기인하는 사상들의 문제점을 드러낸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경제체제를 바꿀만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틀림없이 믿고 있던 인간의 두뇌를 배신하는 것이다. AI는 딥러닝을 통해 당신이 30년 가까이 습득해 온 지식을 단 3분 만에 습득한다. 그래서 AI의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AI에 의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1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이러한 우려는 있었다. 그리고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진화하면서 문명을 이루어 왔듯이, 4차 산업혁명 역시 인류를 또 다른 진보로 이끌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경제를 바꿀 것이다. 자본주의보다는 공유경제가 또 다른 경제의 형태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리더는 없고 각자가 모두 경제의 주체가 될 것이다. 진정한 프로슈머의 사회가 생겨나는 것이다. 기업도 이와 비슷하게 변화할 것이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지식인들이 될 것이다. 본질을 찾는 능력을 중시하게 되고, 그에 대한 정보를 AI가 줄 것이다. 기업들은 B2B보다는 B2C에 더 집중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AI 를 통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이 자동차는 전기에너지로 달리게 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불안이 존재한다. 기계가 운전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기능적으로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홍보하게 된다. 이 점은 기호소비사회는 무너지고 기능주의의 사회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험도 바뀌게 된다. 만약 사고가 나게 된다면 자동차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험 회사는 개인과 기업까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공기업 자소서 책에서 왜 이런 4 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4 차 산업혁명은 아직 우리의 미래라는 공간에 존재한다. 반드시 재화와 시간을 투자해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경제는 늘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중공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그리고 첨단산업으로 넘어간다. 4 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민간에만 맡길 수 있겠는가? 민간은 당장 이윤이 나지 않으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대단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시범단지를 구성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이는 스마트 그리드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민간의 투자를 통해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끌고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는 민간이 만들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단지, 스마트 시티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공기업이다.

복지는 어떠한가? 4 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은 좀 더 투명해지고, 우리의 신상 정보는 시간이 갈수록 의미가 없어진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복지라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사회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 노동자를 늘리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성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복지국가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4 차 산업혁명은 투명한 사회를 추구하고 만들 것이다. 소비자는 착한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부의 평등을 더욱더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사회보장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늘어나고, 복지 공기업은 이 요구를 수렴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오히려 사회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보아야 하는 회사가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4 차 산업혁명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에너지·발전 공기업을 분석해보자.

에너지·발전은 한국 산업의 기초이다.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자원을 확보해 한국 산업 발전에 기초를 만들어낸다. 에너지·발전 공기업은 전력수급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을 선도하며 한국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에너지·발전 공기업들이 한국의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유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발전 공기업이 하는 일들은 한국의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게 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에너지·발전 공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이다. 에너지·발전 공기업의 자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신의 역량이 어떻게 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이다. 그래서 먼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표 5. 에너지·발전 공기업의 종류와 역할〉

한국전력공사	전원개발 촉진과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화력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친환경경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를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 냉난방,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을 토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인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를 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관리하여 국민에게 안정된 수자원의 분배가 이루어 지게 하고, 수질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 전문기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이 가스 사고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공정하고 안전한 석유에너지 시장의 실현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R&D 전담기관으로 창의적 에너지 R&D를 통한 국가 에너지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최고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전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력거래소	국내 전력산업에서 전력시장의 운영, 전력계통의 운영, 실시간 급전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우리나라 원자력과 방사선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설립된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석탄공사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 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와 관리자를 분리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준 정부 기관으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것을 분석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이 회사들은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발전 전략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만은 짠 편에 들어간다. 혹자는 누진세 때문에 한국 전력이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논란으로 인해 누진세에 대한 부분은 개편되었다. 물론 누진세는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원래 누진세는 한국의 산업 발전이 낮을 때부터 만들어졌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부자였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한 롤스의 내용에 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진세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지 못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전기 소비가 세계 3위인 나라에서 누진세는 오히려 역진세라는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누진세를 개편하면 한전의 수익이 줄어들고 다시 전기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전기세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기세를 전체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 물가안정이라는 문제가 불거진다. 하지만 한국은 발전성단가 대비 전기요금이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표 6. 에너지원별 발전성단가〉

에너지원	수력	석탄(유연탄)	유류(중유)	가스(LNG)	원자력	태양광	풍력
발전원별 판매단가	180.95 원	66.43 원	253.04 원	210.11 원	39.61 원	711 원	107 원

〈출처: 한국전력 리포트〉

위의 표는 한국의 kWh 당 발전단가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력요금은 평균 97 원 정도이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국의 전력요금은 산업별·개인별로 다르다. 주택은 123 원, 일반전력요금은 128 원, 교육은 98 원, 산업(법인회사)은 81 원, 농사는 55 원, 가로등은 88 원으로 평균 97 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력요금이 올라야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주택과 일반 전력요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력요금이 세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은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치우쳐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석탄보다는 열효율이 높은 가스에 치중하고 있다 보니 지금의 전력요금만으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해외수주를 통해 이익을 내고 있다. 국제 에너지 평준화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의 규모를 높이고 발전이 낮은 나라에 화력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수출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즉, 해외수주를 통해 이익을 내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에너지·발전 기술을 선도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4 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밀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발전의 최종 목표는 스마트 시티 구축이다.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의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얻고,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는 도시이다.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도시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 바탕이 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이다. 스마트 시티 안에서 발전은 자가발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한전과 발전회사는 B2B 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산업 발전의 키는 에너지·발전 공기업에 있다. 에너지·발전 공기업의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국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발전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산업 발전에 주목해 지원 동기를 적는다면 좋은 자소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금융권 공기업을 분석해보자.

금융권 공기업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학에 대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준에 대한 사상을 인문학이라고 한다. 자신이 어떻게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력을 가지는 능력을 묻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사회의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인문학적 소양의 또 다른 능력은 현재와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진단하는 능력이다. “무슨 수로 미래를 진단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과거를 분석하고 재단할 수만 있다면 논리적 추론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논리적 추론 능력은 금융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이다. 현재 자본주의가 의심받고 있는 현 사회에서 금융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이런 불안정한 사회에서 미래를 진단하는 능력은 금융권 지원자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 문화의 변화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산업에 대한 변화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금융권 공기업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런 생각이 더 들 것이다.

〈표 7. 금융권 공기업의 종류와 하는 일〉

한국조폐공사	화폐 및 유가증권 등 국가적 보안제품의 안정적 제조와 공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토지신탁	신탁업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정비사업 진출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인 리츠 설립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산신탁	부동산 신탁전문 기업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부동산과 금융환경의 중심에서 시장을 리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 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가진 기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 국가 경제와 금융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외환위기 및 글로벌금융위기 등 위기극복의 최일선에서 금융, 기업, 가계, 공공부문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국가경제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한국주택금융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증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 금융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운용, 리스크관리 및 우체국보험금 심사, 조사 업무를 비롯하여 우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업무와 금융고객센터 운영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우체국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종합증권서비스기업으로 3 천조에 이르는 증권을 위탁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증권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증권상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거래소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 개 기관이 통합되어 2005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는 기관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투자공사	외화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협중앙회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복지문화 생활을 지원하고 농업의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보듯 대부분의 금융권 공기업은 금융의 안정성을 위해 일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민 금융,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금융권을 지원한다면 가장 먼저 한국경제와 국제경제의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한국경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 증시, 기업 투자, 수출과 수입 관리 감독, 금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권 공기업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경제만 공부하는 것이다. 경제는 사회·문화·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금융권 공기업은 금융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사회와 문화의 변동을 모르고는 금융권 공기업의 자소서를 쓰기 힘들 것이다. 특히 본인이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다.

한국의 경기, 소비, 물가, 실업률, 설비 투자, 수출, 환율, 금리, 재정,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예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금융 공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2017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 또한 매우 가변적인 가능성이 크다. 경제 성장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테두리 속에 2%대 초반에서 3%에 걸쳐 크게 퍼져 있다. 2017년 한국 경제 전망으로 한국은행은 2.8%, KDI는 2.7%의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민간 경제연구소는 조금 더 낮은 2.2~2.6%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필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결국, 2017년도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조금 어둡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제 전망이 어두우니 고용 전망도 낙관적이지는 않다. 한국 취업자 수의 94.4%를 차지하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전망을 살펴보자. 먼저 제조업은 2015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에 제조업은 고용 저점을 찍은 후 제조업 비중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5년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49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6년 제조업 고용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1월 457만 명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17년 제조업 고용은 조선 부문 구조조정의 여파와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 방향 및 규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2017년 제조업 부문 고용은 해외 수요의 빠른 회복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금융의 제조업 지원은 해외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을 지원하는 IBK 기업은행, KDB 산업은행에서 필요한 역량은 해외 수요 분석을 통한 기업분석이다.

이렇게 경제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매년 경제전망과 사회 변화에 대한 트렌드를 미리 공부하길 바란다.

- 사회·복지 공기업을 분석해보자.

2008 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2008 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복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사회·복지 공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있다. 현재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싶지만, 한국 경제의 체력은 그리 좋지 않다. 민간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사회는 어떠한가?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고, 100 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노후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소비 트렌드는 이런 상황과는 역설적으로 ‘카르페 디엠(Carpe diem)’의 구호로 ‘가치소비’가 생겨나고 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이 구절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이 말은 에피쿠로스학파의 호라티우스의 시 구절인 “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에서 유래한다. 이 구절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이 “오늘을 즐기고, 삶을 비상하게 만들어라.”라는 뜻이다. 결국, 1989 년에 나온 이 영화는 80 년대와 90 년대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제도권을 만드는 권력에 저항하고 당신의 미래를 만들라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카르페 디엠’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즉흥적 소비의 산물로 나오는 말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우리의 쾌락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지’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민간소비가 활성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가정·노동 복지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 흔히들 복지를 하면 정부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지를 늘리지 말자고 한다. 대부분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지출은 SOC 에 대한 지출이 더 많다. 복지 지출은 대부분 기금과 해당 연금으로 이루어질 뿐 생각보다 정부 재정에 부담이 크지 않다.

사회·복지 공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는 정복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를 거쳐 등장했다. 정복국가는 국가 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각종 자원을 수탈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발전국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생산 및 상업 활동의 지원을 통해 나타난 국가이다. 발전국가의 법은 신흥 자본가 계급의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형성하였다. 민주국가는 노동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을 강화하면서 지배층은 노

동계급의 민심을 얻기 위해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어놓으면서 복지국가가 탄생하였다. 복지는 사회간접자본과 가정노동복지로 나뉜다. 복지정책이 많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포퓰리즘으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정노동복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늘려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가정노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

복지는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 번영, 안녕'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상황과 국민의 문화에 따라 복지 정책은 다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모방한다거나 외국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한국의 상황과 문화에 맞춰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의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기업은 한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상품을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시 행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공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결국, 복지는 주체가 사회인지 국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복지의 주체가 사회라면 복지 제공은 잔여적 복지 제공이 될 뿐이다. 복지의 주체가 국가라면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항시적이고 조직적으로 복지가 제공되는 제도적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과제의 중심에 사회·복지 공기업이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공기업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8. 사회·복지 공기업의 종류와 하는 일〉

국민연금공단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적용·징수 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국민건강보험공단</p>	<p>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한국산업인력공단</p>	<p>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p>	<p>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상교직원의 연금사업, 재해보상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대관·임대사업, 자금운용을 통해 연금을 운영 활용하고 있다.</p>
<p>공무원연금공단</p>	<p>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과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p>
<p>보훈복지의료공단</p>	<p>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참전한 분들의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재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 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시작으로 2001 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바뀌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서울, 광주, 부장, 대전, 대구 등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한국장애인고용공단</p>	<p>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심사하는 동시에 국민이 받는 진료 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의료소비를 돕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국민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확인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p>
<p>한국고용정보원</p>	<p>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업무로는 고용정보의 생산과 분석을 제공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고용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면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을 하고 있다.</p>

위에서 소개하는 공공기관에서 설립목적과 비전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복지의 장은 민주적으로 해결되며 공론의 장의 형성이 시급하다. 공론의 장의 역사적 배경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공론의 장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존 봉건사회에서는 밀실의 정치를 해오던 것이 봉건 권력과 신흥 자유주의 부르주아가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공간의 형성되었다. 신흥 부르주아들은 공적 영역

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대중의 계몽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합리적인 토론과 독서를 권장하면서 문학 인쇄물이 등장한다. 즉 문자 세계로서의 공론의 장이 형성된 것이다. 문자 세계의 공론의 장은 언론 매체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언론매체가 상업화와 대중화의 면모가 나타나면서 개인들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접근기회를 박탈하고 사적 개인들은 대중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론장에서 토론이 아니라 대중 매체의 광고(언론의 논리) 때문에 형성된 견해가 여론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아닌 정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한다. 권력의 속성은 모여서 행동하고 발언할 때 생성되고 흩어지면 소멸한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공론은 불편 부당성(일부 이익에 편승하는 것들의 반대)에 의해 나타나야 한다. 즉 공기업의 정책은 공론화되어야 하고, 공론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공기업은 중론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기업은 발언과 행동이 분리되거나 분산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발언들이 관념적이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애국심이라는 관념만으로 공기업의 정책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기업의 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하며, 그것이 정책과의 연관성보다는 공공서비스로서 연관성이 더 중요하다. 또한, 공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지게 하면서, 사회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공기업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6.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 넣어라.

- 세련된 자소서를 쓰기 위해 추상을 구체화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사고를 거칠게 하는 방법과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바꾸는 방법이다. 바로 논리에서 가장 필요한 개념인 '추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전에 앞에서 했던 논리적 사고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자.

논리는 기본적으로 연역 추론과 귀납 추정으로 이루어진다.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 일반화하는 영역으로 자소서 쓰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이다. 귀납 논리가 갖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쓰기의 영역에서 반드시 오류가 나타난다. 자소서 항목에서 나타나는 조건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경험을 찾기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 쓰기 전 단계에서 귀납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한 일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귀납적 추정을 통해 글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주십시오. 목표,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결과적으로 본인이 얻은 성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제리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유럽여행을 하던 중 프랑스 파리를 들러 관광을 하다 카페에 들렀을 때 어떤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 부부의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아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부는 알제리 출신으로 제가 여행 중이라고 하자 알제리를 추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제리를 여행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부부의 느낌이 좋아 알제리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황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이방인>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락)

귀납적으로 쓰면 이렇게 사실을 나열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귀납적 추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위의 자소서도 경험과 지식은 충분하지만, 자신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지 못했다. 일단 너무 경험에 치중했고, 능동적으로 ‘도전’이라는 조건이 생략된 자소서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한 경험을 통해 논리적인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이라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다. ‘필연’은 다른 말로 ‘인과율’이라고도 한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것을 낯설지 않은 것으로, 이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과율을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인과율은 해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계보적인 출처이다. 계보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해석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원인)에서 다른 상태(결과)가 필연적으로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 이 법칙을 인과의 법칙 또는 인과율이라고 한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직접 도출해낼 수는 없다. 같은 방식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유사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뿐이다. 즉, 경험은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인은 어떤 특별한 목적은 없지만, 일상생활이나 과학적인 문맥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봐야 한다. 자소서는 본인이 한 경험을 조건에 맞게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부부의 느낌이 좋아 알제리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황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느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소서에서 ‘추상’이라는 개념을 빼기 시작해야 한다.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논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추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산이 높다.”라는 문장에서 ‘산’은 추상적 개념이다. 여기에서 ‘산’은 실제 하지 않는 산이다. 만약 이런 말을 쓴다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산’이라는 각자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 집 근처의 산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산을 생각할 수도 있다. 좀 더 자소서에 맞는 문장을 통해 이야기해보자. 자소서를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소통’이다. “최근 5년간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역할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소서 항목이 주어졌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 소통을 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저의 장점을 살려 공단의 고객에게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장에서 ‘소통’은 추상적인 개념이 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소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쓴다. ‘소통’의 정확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쓰고 있는 것이다. ‘소통’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은 ‘뜻이 통한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가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글은 강제성을 지닌다. 추상을 구체화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 추상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이라는 것이 있다면 소통의 주체가 누구이고, 말하는 대상과 본인이 무엇을 통하고 싶었는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은 추상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우리 팀의 목적인 협력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설득했습니다. 상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협력했고, 저는 상대가 원하는 부분을 협의해 처리해 주었습니다.

위의 문장이 ‘소통’으로 예들려 말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다. 문장과 내용은 반드시 분명해야 한다. 이것은 글쓰기의 스킬이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에 있다. 세련되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우리는 흔히들 ‘뇌섹남’이라는 표현을 쓴다. ‘뇌가 섹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생각해 보자. 흔히 TV 에서 ‘뇌섹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를 잘한다거나,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지칭된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뇌섹남, 뇌섹녀’라고 부르는가.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을 추상적인 단어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단어로 분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글에서도 희미한 관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사회의 정해진 규칙과 약자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추게 된다. 자소서에는 그 사람이 좋게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추상을 지워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소서를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된다. 위의 자소서에서 추상을 지워내면 다음과 같아진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 소설들을 좋아합니다. 냉소적인 어조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프랑스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을 쓴 알베르 카뮈의 고향인 알제리와 모든 작가가 꼭 한번은 머무는 파리는 단연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가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돈을 모으는 것부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자금이 모일수록 저의 프랑스 여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몇 명으로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을 짜고 그에 필요한 경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략)

이 자소서는 ‘프랑스 여행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프랑스 책을 읽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경험이지만, 추상적인 부분을 없애니 구체적인 경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글은 디테일에 미학이 숨어 있다. 생각도 세밀하게, 글도 정교하게 써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자신이 한 경험을 나열해보자.

〈표 9. 자소서 소재 구체화하기〉

시기	경험	의미
2009년 여름	인력경호업체 입사	하고 싶은 일(창업)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중에 시급이 높았다.
2010년 봄	인력경호업체 퇴사	
2011년 겨울	의류 쇼핑몰 창업 계획	창업 계획을 실시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무산되었다. 창업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2년 봄	창업 계획 무산 (금전적 문제)	
2015년 봄	레드브릭스(온라인 마케팅 회사) 인턴 시작	창업이든 취업이든 나에게 부족한 능력이 마케팅 능력이라는 것을 느끼고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 인턴을 지원했다.

2015 년 봄	다문화 인식개선 동영상 제작 및 배포 JEI 공모전 출전	여기에서 공모전에 입상된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내 능력을 입증받기 위해 계속 도전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이다.
2015 년 여름	학과 내 프로젝트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	
2015 년 여름	야놀자 마케팅 공모전 출전	
2015 년 여름	수림문화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출전	
2015 년 여름	제 6 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출품	
2015 년 가을	2015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프로그램 (2015 캠퍼스 리부트) 최종 창업 팀 선발에서 아쉽게 탈락	창업팀에 지원한 이유는 나의 마케팅 능력 아이디어를 검증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통 자신이 한 경험을 나열하면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쓰지 못한다. 처음에는 거칠게 자신이 생각나는 경험이나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쓰면 된다. 이때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다 보면 자신이 한 경험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단지 자신이 기억나는 것이 없을 뿐이다.

우리 인생을 되짚어보면 생각나는 일들이 많지 않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일들을 모두 기억한다면 우리의 뇌는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내용에서도 공모전에 계속 도전을 했지만 입상된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공모전을 내면 낼수록 자신의 내공이 쌓여갔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도전한 행동은 자신에게 있어 큰 자신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다.

이 추측을 구체적인 ‘어떤 자산’인지를 밝히고 생각하는 것이 자소서이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쓰지 못한다. 하지만 계속 논리적인 사고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단초를 통해 구체적인 언어가 생각이나는 것이다. 이를 ‘마들렌의 사고’라고 한다. ‘마들렌의 사고’란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 기원한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마들렌’이라는 빵을 통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던 시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마들렌의 사고’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고 다시 의미를 되짚어 가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들이 단초가 되어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자소서 소재 구체화를 더 구체화하기〉

시기	경험	의미	구체적 의미
2009년 여름	인력경호업체 입사	하고 싶은 일(창업)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시급이 높았다.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창업하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2010년 봄	인력경호업체 퇴사		
2011년 겨울	의류 쇼핑몰 창업 계획	창업 계획을 실시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무산되었다. 창업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위해 재무, 회계, 마케팅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이다.
2012년 봄	창업 계획 무산 (금전적 문제)		
2015년 봄	레드브릭스(온라인 마케팅 회사) 인턴 시작	창업이든 취업이든 나에게 부족한 능력이 마케팅 능력이라는 것을 느끼고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 인턴을 지원했다.	나에게 모자란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접근이 쉬운 것부터 찾았다.
2015년 봄	다문화 인식개선 동영상 제작 및 배포 JETI 공모전 출전	여기에서 공모전에 입상된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내 능력을 입증받기 위해 계속 도전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이다.	내 능력이 모자란 것은 마케팅뿐만이 아니었다. 계속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재무 설계, 문장 능력, 발표능력, 팀 운영능력을 하나씩 배워갔다.
2015년 여름	학과 내 프로젝트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		
2015년 여름	아놀자 마케팅 공모전 출전		
2015년 여름	수림문화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출전		
2015년 여름	제 6 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출품		
2015년 가을	2015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프로그램 (2015 캠퍼스 리부트) 최종 창업 팀 선발에서 아쉽게 탈락	창업팀에 지원한 이유는 나의 마케팅 능력 아이디어를 검증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마케팅 능력 아이디어를 검증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회계, 재무에 관한 것을 배우고 싶었다. 그리고 탈락 후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이제 2 차로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다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니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소서를 쓰는데 이런 작업까지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언어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을 지나야 자소서가 더 구체화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소서처럼 말이다.

지원자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원에 지원한 직무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직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그 능력을 활용했던 경험과 결과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우친 프로젝트”

광고 및 마케팅 공모전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무지함을 느끼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의 인턴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케팅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턴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인턴 기간 중에도 광고와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하여 습득한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턴 수료 이후 저는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중소기업인 돕기 프로젝트팀에 합류하였고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이자카야(수유점)의 매출 상승 및 고객 확보를 위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이용한 바이럴마케팅과 해당 업체에서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부각시키는 니치마케팅을 기획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팀은 기간 내 영업매출 상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팀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실전경험을 익힐 수 있었으며,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홍보나 마케팅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콘텐츠 사업화에 대한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모전을 통해서 습득하여 교훈이 된 마케팅의 실패전략과 이를 배움 삼아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마케팅 성공전략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의 자소서도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참 모자란 자소서이다. 하지만 합격한 것을 보면 분명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중소기업 돕기 프로젝트팀에 합류한 점’,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한 점을 통해 자신이 마케팅 영역에서 부족한 점을 느끼고 보완한 점을 썼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자소서를 읽고 혹시 “공모전에 많이 참여해야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이 한 경험을 토대로 구체화하여 썼을 뿐이다. 경험은 경험 그 자체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경험의 경중은 달라지는 것이다.

경험을 쓰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 모자란 것이 있다. 자소서라는 글을 쓰다 보면 분명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위의 자소서에서도 “인턴 기간 중에도 광고와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하여 습득한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비어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습득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캐릭터를 발견하는 일이다. 캐릭터의 성격상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상상한다면 이 비어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인의 캐릭터를 발견하라.

자소서는 강제성이 강하다. 항목은 전부 ‘조건’들로 되어 있고 조건에 맞게 자기 생각과 경험을 틀에 끼워 맞추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소서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부를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는 ‘자소설’이라는 것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의 영역에서의 글이다. 주인공 및 등장인물은 반드시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필연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에서는 ‘필연’의 영역을 채워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에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적어야 하는 것이 자소서이다.

우리의 기억은 자발적 기억과 비자발적 기억으로 나뉜다. 자발적 기억은 본인의 입장에서 기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첫사랑을 떠올려보자. 첫사랑의 기억은 마치 흐린 안개 속에 있는 듯 좋았던 느낌만을 기억할 뿐 세세한 감정과 행위, 행동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좋았어. 좋은 사람이었어.’라는 단어들로 첫사랑을 나타낼 뿐이다. 자발적 기억은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비자발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고 하는 것이다. 세세하게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사실만을 기억할 수 없다. 사실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군데군데 끼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은 비자발적 기억에 의존해 써야 한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비자발적 기억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신에 캐릭터를 알고 있는 일이다. “이 캐릭터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비자발적 기억을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장단점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자소서에서 쓰는 캐릭터는 거의 완전무결한 캐릭터이다. ‘설득을 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갈등을 중재해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험을 해 본 캐릭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자신의 장점만을 적어서는 안 된다. 장점과 단점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만을 적는다면 절대 좋은 캐릭터가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장단점을 모두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단점을 적을 때는 약 100 개가 적당하다.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 개 정도를 적어야 더 세밀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합쳐 100 개 정도를 적는 연습을 해보자.

〈표 11. 캐릭터를 발견하기 위한 장단점 적기〉

장점	단점
책임감이 강하다.	다혈질이다.
의리가 있다.	오지랖이 넓다.
예의가 있다.	예민하다.
열정적이다.	결벽증이 있다.
소속감이 뛰어나다.	경쟁심이 강하다.
인사를 잘한다.	의욕이 과하다.
결단력이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통찰력이 있다.	외로움을 탄다.

이렇게 자신의 장단점을 적었다면 그다음 할 일은 장점을 지우고 단점만 보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자신의 단점을 변명하라는 이야기이다. 이 작업을 통해 어떤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점화해야 제대로 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2. 단점을 장점화하기〉

단점	장점화하기
다혈질이다.	추진력이 좋고, 일 처리가 빠르다.
오지랖이 넓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노력한다.
예민하다.	사회적 변화, 자신의 주변 변화를 빨리 파악한다.
결벽증이 있다.	깔끔한 성격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경쟁심이 강하다.	경쟁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의욕이 과하다.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변화에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외로움을 탄다.	소속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바꾸면 캐릭터가 보이게 된다. 위의 캐릭터는 추진력이 빠른 브레인 같은 캐릭터이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의할 점은 여기까지 오면 본인이 아닌 캐릭터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자소서에서 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구체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구체화 시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앞의 자소서 사례를 가져와 보자.

저는 마케팅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턴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인턴 기간에도 광고와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하여 습득한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의 자소서에서 ‘어떤 습득’을 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제 위에서 만든 캐릭터가 ‘어떤 습득’을 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된다. 이 영역이 바로 필연의 영역을 만드는 상상력인 것이다. 캐릭터는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인턴 기간에 돌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저는 마케팅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턴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사회 변화 파악 돌발 상황 대처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하여 마케팅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의 단 한 단어, 한 문장을 넣기 위해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불필요하지 않다. 자소서는 한 문장, 한 단어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신에 캐릭터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자신과 캐릭터를 일치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캐릭터는 말 그대로 자신이 아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그 안에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캐릭터로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는 하지 마라. 자신의 자소서가 아니게 될 테니 말이다.

7. 문장을 세련되게 만들어보자.

- 문장이란 무엇인가?

좋은 문장은 무엇이고 나쁜 문장은 무엇인가? 문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문체를 가지기 위함이다. 자소서에는 자신만의 문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만의 문체를 가지고 있어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장은 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과 세밀한 자소서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이 되는 것도 자신의 문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장이란 무엇인가? 한 편의 자소서는 문장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자소서 또는 글은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문장은 단어들의 결합체이자 단락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글은 문장의 집합인 것이다. 문장은 하나의 완전한 의사를 가지는 단어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 단어들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 ‘너’, ‘순간’ 등의 단어들은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않는 것이다.

문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유는 문장을 통해 하나의 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장을 통해 글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문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론을 공부한 사람들과 차이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기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인 것이다. 자소서의 본질을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종합해 보면 자소서란 주어진 조건에 의해 자신만의 생각과 스토리를 자신만의 언어로 적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소서는 ‘글’이라는 표현 방법에 의해 자신의 스토리를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은 무엇인가? 언어학자인 야콥슨은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글은 일상 언어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필자는 이 말에 매우 동감한다. 글은 일상 언어의 파괴이다. 우리가 흔히 관계를 맺거나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을 일상 언어라고 말한다. 일상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일상 언어의 ‘격’을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스토리를 가진 짧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격’이 바로 ‘문장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자소서와 아닌 것의 판단 근거는 문장력이다. 문장력을 키우는 것은 자소서를 쓸 때 ‘화룡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문장력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첫 번째는 대부분 문장력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은 환유, 은유적 표현으로 소설이나 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므로 자소서에서는 그리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주 새로운 표현을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어떤 글을 보더라도 아주 새로운 표현, 촌철살인의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장은 여러 단어의 조합이므로 식상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문장이 정확하면 읽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오히려 문장이나 단어가 튀면 읽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아주 새로운 표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워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어떻게 문장력을 기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력이다. 어휘력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독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전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입말(구어체)을 살리는 방법이다. 입말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말을 하듯이 글을 써내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어휘이다. 우리가 글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 다르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문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앞에서 한 모든 말들은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사고를 확장했다면 응당 말이 많아진다. 생각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다. 이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고스란히 내뱉을 수 있다면 그 뒤에 기술이 자리 잡는다. 우리는 자소서를 쓸 때 처음부터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못 쓰는 것이다. 자기 생각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겠냐는 말이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데 몇 가지 버려야 할 생각들을 이야기해보자. 일단 글과 자소서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자소서가 무슨 글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소서는 조건에 맞춰 아주 함축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기술이 들어가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소서와 글을 구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글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것 아냐? 약간의 재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라는 말이 돌아온다. 하지만 대다수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재능이 없다. 여러 가지의 노력을 통해 지금의 그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 ‘다독, 다작, 다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큼 많이 읽고, 얼마큼 많이 쓰고, 얼마큼 많이 생각

해야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지를 모른다. 예를 들어 필자가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저는 저번 시즌에 자소서 50 개를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라는 말이다. 분명 많이 썼다. 아마 소설이나 시를 50 번 정도 썼다면 등단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자소서라는 틀에서 생각을 제한하고 썼다는 증거가 된다. 생각해보라. 떨어진 자소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제대로 좋은 문장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어야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

당나라 최고의 문장가 한유의 말을 빌려 문장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겠다. “豊不餘一字 約而不失一辭 (풍부여일자 약이부실일사)”라는 말이 있다. 이는 “풍부하되 한 글자도 남아서는 안 되고, 간략하나 한 마디도 빠뜨려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필자는 자소서에도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정말 조건에 맞추어 다 이야기 하되 간략하게 적는 것이 바로 자소서의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 문장의 구성요소

문장의 요소에는 주성분, 부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성분으로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다. 독립성분으로는 독립어가 있다. 그렇다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무엇일까? 다음 문장을 보자.

주성분 내용

- 나는 취업 준비생이다. (주격 조사 - 은, 는, 이, 가)
- 나는 취업 준비를 한다. (목적격 조사 - 을, 를)
- 나는 직장인이 아니다. (되다/아니다가 서술어인 경우 그 앞에 위치하는 것을 보어라 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나는’이고, ‘취업 준비생이다’는 서술어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취업 준비를’이 목적어이다. 세 번째 문장에서 ‘직장인이’가 보어이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를 일컫는다. 우리말에서는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완전한 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주성분이 되는 것이다. 이 중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어’이다. 목적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서술어에 따라 필요로 한다. 서술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 없이 주어와 서술어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달라지므로 한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나 동사,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있다. 우리말이 영어와 다른 점은 형용사라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어 같은 경우는 보통 주격 조사 ‘이, 가’가 붙어서 사용되거나, ‘은, 는’의 보조사가 결합해서 주어가 될 수 있다. 주어의 특성 중 하나는 이중 주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머리가 좋다.”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나는’과 ‘머리가’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주어는 잘 생략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밥 먹었니?”라는 문장에서 ‘너는’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이는 입말체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글을 쓸 때 주어가 반복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목적어는 ‘을’과 ‘를’이 붙어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보어는 되다/아니다가 서술어인 경우 그 앞에 위치하는 것을 보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성분이 있다. 부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로서 문장을 좀 더 생동감 있고 풍부한 묘사를 위해 부사어가 필요하다. 부성분은 자소서에서 자신의 경험을 쓸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쓰게 되면 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적절하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

부성분 내용

- 관형어: 저는 옛 스승을 만났습니다. (‘옛’의 품사 - 관형사)
- 부사어: 그는 키가 무척 컸습니다.

위의 두 문장에서 ‘옛’이 관형어이고, ‘무척’이 부사어이다. 부성분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쓸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생동감 있고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 관형어이고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어이다. 관형어와 부사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관형어의 형태에는 관형사, 체언, 혹은 체언과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것, 용언과 관형사형 어미 ‘-ㄴ, -은, -는’이 결합된 관형사 절의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 저는 옛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 저는 전공 스터디 모임에 나갔습니다.
- 저는 000 학원의 수업을 듣는다.
- 저는 표지가 예쁜 책만 읽습니다.

위의 ‘옛’은 스승을 꾸며주는 관형사로 품사도 관형사이다. 두 번째 문장은 ‘스터디’라는 것이 체언, 즉 명사이고 그 체언을 꾸며주는 ‘전공’이라는 표현이 관형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장에서 000 학원과 수업 사이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 000 학원이 관형사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책’을 꾸며주는 ‘표지가 예쁜’이라는 말도 관형어구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관형사는 무엇을 꾸며주는 것으로 작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서술어를 꾸며주는 것과, ‘-에’라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와 ‘그’라는 단어가 붙어 부사구를 이룬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생략을 한다. 자소서를 쓸 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부사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문장을 쓸 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소서의 문장은 간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한다. 독립성분 또한 생략한다. 입말체나 ‘호어(부르는 말)’을 쓸 때는 필요한 말이지만, 자소서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다.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성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한다. 단, 우리말의 기본 문형은 알고 넘어가자.

우리말의 기본문형

- 주어+서술어
- 주어+목적어+서술어
- 주어+보어+서술어
-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그다음으로 문장을 세분화했을 때 어떤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먼저 음소, 음절, 낱말, 어절, 문장에 대해 알아보자. 음소는 음을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음’이라는 단어의 음소는 ‘ㅇ+ㅡ+ㅁ’이다. 음절은 ‘음+절’이라고 보면 된다. 낱말은 ‘음절’ 자체를 이야기하고 어절은 조사가 붙어 어떤 문법적 의미를 가지

고 있는지 아는 것이고 문장은 이 모든 것을 합쳐 놓은 것이다. 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구와 절을 알기 위해서이다.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구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책하는 것은 몸에 좋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때 ‘산책하는 것은’이 주어이다. ‘산책하는’과 ‘것’이 모여 주어라는 품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구’라고 한다. ‘절’은 주어+동사의 형태로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은 목적어이다. 분석해보면 ‘그녀가’는 주어이고, ‘정직하다’는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홀문’과 ‘겹문’이다. ‘홀문’은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네 가지 문장을 모두 ‘홀문장’이라고 한다. ‘겹문’은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다. ‘안은 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홀문’ 안에 넣어 강조하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나는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임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문장은 안에 ‘그토록 고통스럽다.’라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목이 말라서 맥주를 사 마셨다.”라는 문장에서 “나는 목이 마르다.”와 “맥주를 사 마셨다.”는 종속적(목이 마르니 맥주를 마신 것이므로)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홀문’과 ‘겹문’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문장을 읽기 편하도록 호흡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자소서라는 짧은 글을 쓸 때는 ‘홀문’만을 쓰는 경우가 많다. 2,000 바이트 정도의 긴 자소서도 가끔 나타나는데, 이때 홀문과 겹문을 겹쳐 쓰면 읽기가 편하므로 좀 더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다.

입사 후 직장생활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문 분야 작품(도서, 영화, 미술, 음악 등)을 선정 후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산업은행은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은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적응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의 가치관인 ‘변화하는 삶과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춰야 나의 내일이 변화한다.’라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배운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톨스토이의 <이반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과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입니다. <이반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인 이반일리치는 자신에게 어떤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일상은 늘 같아야 하며, 다른 일이라도 생기면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겪습니다. 이런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삶이 바로 ‘real-life’입니다. 주인공은 스스로 변화하고 삶을 택하는 것이 진

정한 삶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에서도 주인공인 뫼르소는 전형적인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의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음의 목전에서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이 하는 태양 살인도 일종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히스테리였습니다. 뫼르소도 역시 죽음의 목전에서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내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은 가장 멍청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내일의 나를 기대하기에 지금 현재 변화하는 사회를 직시하고 읽어내며 저 또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위의 자소서는 흘문과 겹문을 섞어가며 쓴 글이다. 정확하게는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을 서로 섞어 쓰며 문장에 호흡을 주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책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흘문과 겹문을 적절하게 섞어 표현함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좀 더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8.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일까?

- 좋은 문장과 나쁜 문장은 무엇인가?

좋은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다. 하지만 좋은 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장력을 보여주고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문장을 쓰고 싶어한다. 사실 좋은 문장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좋은 문장과 그렇지 못한 문장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력이란 얼마나 멋진 수사를 얼마나 많이 동원해서 현란하게 쓰는 것으로 판가름 되는 것이 아니다. 문장이란, 글을 쓰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나 오롯이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문장은 내용과 어울리는 형식으로 존재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최고조에 이른다. 아무리 현란한 문장이라도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개발에 편자’일 것이다. 또한,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는 쉬운 문장이어야 하고 간곡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자소서의 특징상 감정을 많이 드러낼 수 없다. 그러므로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문장이어야 자소서에 좋은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의 기본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을 비틀지만 않는다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

좋은 문장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진부하기 짝이 없는 말이 첫 번째 조건이다. 그렇다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사건들을 조건에 맞게 필연의 영역으로 만드는 글이다. 결국, 자소서는 가공의 산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라’는 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문한다.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면 진솔하다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누가 봐도 본인이 설득하지 않은 것을 설득했다는 태도로 우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저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저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상대는 저의 주장을 이해해 주었고, 제 말에 동조해 주었습니다. 저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 저의 설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신이 설득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임에도 설득을 했다가보다는 설득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을 상대에게 납득시켰다는 내용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본인이 상대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로 미루어보아 이 행위는 ‘협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우기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문장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는 문장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조금 자소서를 쓴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문장과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다. 멋진 문장, 아름다운 문장, 과시하는 문장만을 쓰게 되면 문장 자체에 함몰되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문장을 남발하게 되는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무시한 채, 자신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글을 쓰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 스스로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줄 아는 사람만이 OOO 공사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OO 공사의 ‘변화하는 인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의 역량으로 매일 변화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위의 문장은 회사의 인재상과 자신의 역량을 쓰는 곳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 문장이다. 대부분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로 되어 있다.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더 본인이 구체화하여 써야 한다. 그럼에도 정의해보지도 않고, 구체화시키지도 않은 채 쓰면 위와 같은 현학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자소서 문장 연습을 할 때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는 필자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수업에서는 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지만 내내 필자의 가슴 속에는 반드시 이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학생들에게 자소서를 쓸 때 무조건 길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계속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은 그다음을 생각한다. 글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제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 자리 잡은 생각, 스토리를 한 톨도 남김없이 내뱉고 나면 어떤 사건을 감춰야 하는지, 생각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남김없이 보여준 다음이야말로 감춰 줄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풀어 놓아야 자소서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자소

서는 하나의 글쓰기 과정이다. 우리 내부에서 완벽하게 직조된 옷감을 꺼내는 것이 아니다.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완성된 자소서를 끄집어내고 싶어 한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풀어내어야 제대로 된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문장은 집중하여 관찰하고 세밀하게 써야 한다. 서정주 시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서정주 시인은 ‘국화 옆에서’를 쓰기 위해 사시사철 국화를 관찰했다. 이렇게 유명한 시인도 자신의 시 한편을 쓰기 위해 국화를 일 년 내내 관찰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문장, 글에 초보인 우리가 일필휘지로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장은 디테일해야 한다. 필자가 수업에서 늘 하는 말이 있다. “좋은 말,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있는 말로 디테일을 ‘통’치지 마세요.”라는 말이다. 그래서 문장은 디테일해져야 하고, 분석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저는 이 문제점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한 명씩 만나 속마음을 들어보고 소통을 하니 직원들이 이해해 주고 그다음부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문장은 침삭할 때 거의 80% 이상이 쓰고 있는 문장이다. ‘소통’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사고를 가로막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말이다. 문장에서 형이상학적인 표현은 사라져야 한다.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직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만 사항과 요구사항을 나눠 정리 하였습니다. 전체의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적어 직원들과 회의를 주관한 뒤 불만 사항 개선과 요구사항에 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였고, 그 뒤부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같은 내용을 세분화하여 쓴 것이다. 이렇게 쓰면 내용이 길어진다는 불만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소서는 한 항목을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고치고 또 고쳐가며 자신이 작성한 문장의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을 거치게 되므로 그때 분량을 줄일 수 있다.

- 불완전한 문장일 때 오류가 생긴다.

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 반면 문장은 짧게 쓸수록 뜻이 명확해질 수 있다. 물론 유명한 작가나 문필가 중에서도 긴 문장을 써서 글 맛을 내는 작가들이 더러 있지만, 그것은 문장에 숙련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대부분 글을 얼마 써 보지 않은 사람은 문장 연습의 걸음마 단계에 있다. 따라서 문장을 짧고 정확하게 쓰는 것부터 연습해야 한다.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주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미도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한 단락 정도로 구성해야 할 내용을 문장 하나에 갈무리해 놓았으니 난해하게 느껴짐은 당연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과 여러 개의 단문으로 나누어 나타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긴 문장으로 산만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구조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짧은 문장은 간결하고 문장의 완결성을 갖추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길어서 불완전한 문장의 사례〉

① 불완전한 문장

- 과거 일제 식민지였을 당시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은폐한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고친 문장

- 과거 일제 식민지였을 당시, 일본인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은폐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고쳐 써야 한다고 하면 문장을 화려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경우가 있다. 또는 어떤 수식으로 꾸며서 내용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문장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내용에 대한 부분이 충실하지 않다면 볼품없는 자소서가 된다. 소설을 보더라도 그렇다. 필자가 가끔 인문학 수업에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엄마를 부탁해〉를 택한다. 물론 이효석의 작품도 너무 훌륭한 작품이다. 문장도 화려하고 내용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작품의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반면 신경숙의 작품은 이효석 작품보다 문장의 화려함은 떨어지나 많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유는 감정선의 디테일과 사건의 조밀함 때문이다. 자소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화려한 문장으로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면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문장보다는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고, 내용이 조밀하다면 좀 더 경제적인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

한편 자소서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명언이나 명구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또는 주위의 조언을 직접적으로 넣기도 한다. 이렇게 명언이나 명구를 넣을 때는 먼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명언이나 명구를 넣지 않는 것이 더 세련된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내용을 인용할 때는 직접 인용을 할 것인가, 간접 인용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접 인용문은 큰 따옴표로 묶고, 간접 인용문은 연결어나 접속어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인용한 내용임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 직접 인용문 뒤에는 ‘-이라고’를, 반침이 없을 때는 ‘-라고’를 쓴다. 간접 인용을 하는 경우 ‘-이다’의 형태로 문장을 접속시키는 것을 종종 본다. 이는 틀린 표현이다. 간접 인용에서 연결어는 ‘-이다’가 아니라 ‘-이라고’로 써야 한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사례〉

- 직접인용: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 간접인용: 주위 사람들은 저에게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명언이나 명구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자소서 항목에서 가끔 ‘다른 사람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쓰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써야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좋다는 느낌만으로 명언이나 명구를 쓰면 안 된다.

- 어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문장을 쓸 때 구어체를 많이 쓴다. 오늘날의 글쓰기에서는 입말체가 독자에게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론 때문에 말하듯이 써도 무관하다. 또한, 자소서에서 서술어는 높임말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어체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문법의 범위 안에서 써야 한다. 사람마다 의식 없이 행하는 말버릇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 앞에 '저기요'를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저' 등의 의미 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구어체로 말하듯 무심결에 글을 쓰다 보면 자소서에 의미 없는 문장들이 들어가게 되어 경제적인 문장으로 자소서가 구성될 수 없다.

특히 같은 어휘가 자주 반복되는 자소서는 읽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어휘가 반복되면 글쓴이의 무지와 무성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필요 없이 같은 어휘를 여러 번 반복한 자소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어휘 반복의 오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상투적인 접속사나 습관처럼 사용하는 어휘를 반복하는 것이다. 상투적인 어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사로 사용하는 어휘를 말한다. 특히 자소서에 자주 쓰는 상투어에는 '역할', '느낌', '많이' 등이 있다. 상투어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쓰게 되면 자소서를 읽는 채점자를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같은 어휘를 반복하는 사례〉

- 잘못된 사례: 공기업의 역할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역할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바탕으로 OO 공사에서도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회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OO 공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친 사례: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OO 공사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OO 공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소서라 하더라도 과장되고 추상적인 수식어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말은 감각적인 수식어가 발달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쓰는 데는 풍부한 어휘를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소서는 문학적인 것보다는 설득적인 성격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적인 글에서는 감각적이고 추상적인 수식어를

쓸 필요가 없다. 특히 은유적 표현은 기피해야 한다. 은유를 사용한 문장은 그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언부언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되고 추상적인 수식어를 쓴 사례〉

- 마치 그 일을 한순간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부모님의 말씀은 마치 무엇으로 두드려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자신만 알고 있는 느낌을 쓰고 있다. 은유적 표현이므로 ‘봄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써야 하기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고, 문장의 경제성을 해칠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직유법으로 쓴 문장이다.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을 직접 넣거나 생략해도 뒤에 이유가 있다면 생략 가능한 문장이다. 결국, 감각적인 문장은 문학이나 시에서만 어울린다. 자소서에서 문학적인 역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감각적인 문장이 많이 들어가면 읽는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9. 퇴고는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

- 문장을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자.

글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퇴고다. 퇴고는 자신이 쓴 글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필자가 자소서를 첨삭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가 “제 문장이 어색한가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문장이든 문장을 다듬는 일에는 정답이 없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처럼 맞고 틀리고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렇다. 필자가 단지 내용상 어색하다는 이유로 손보고 다듬은 자소서가 본인의 손에 들어가면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소리도 듣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문장을 다듬는 일에 무슨 법칙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없다. 수많은 자소서를 첨삭했지만, 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하나이다. 글은 자기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인이 첨삭하고 문장을 다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첨삭해줄 때에도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만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자소서도 퇴고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유명 작가들도 자신의 글을 퇴고하기 위해 몇 번이나 다시 본다. 그런데 하물며 글쓰기 초보인 자소서를 쓰는 사람이 퇴고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퇴고를 하면서 본인이 쓴 글의 군살을 빼야 한다. 생각보다 우리가 쓴 글에는 군더더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첫 번째 공식을 알아보자. ‘적 · 의를 보이는 것 · 들’이라는 공식이다. 접미사 ‘-적’과 조사 ‘의’, 그리고 의존 명사 ‘것’, 접미사 ‘-들’은 문장 안에서 습관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 실제로 첨삭을 하는 자소서에서 ‘적, 의, 것, 들’만 빼도 문장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때가 있다. 우선 접미사 ‘-적’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적’: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등 우리는 ‘-적’이라는 접미사를 많이 쓴다. 연속으로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뺄 수도 없다. 물론 국어에 없는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논리적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이 주장이 그리 설득적이지는 않다. 다만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쓴다면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의 단어들은 지원동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이를 고쳐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현상, 경제적 문제, 국제적 관계, 자유주의적 성향

→ 사회 현상, 경제 문제, 국제 관계, 자유주의 성향

‘-적’이라는 표현만 지워도 훨씬 깔끔해 보인다. 그렇다고 뜻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 더 분명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한 글자만 지워도 본인의 뜻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문장이다.

조사 ‘의’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다만 어색할 뿐이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쓰는 데 있다. 사람들은 말에 습관을 가지고 있다. 글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은 한 번 쓰면 그 편리함에 중독되어 자꾸 쓰게 된다. 아예 쓰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편리함에 중독자인지 살펴라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은 어떤가 살펴보자.

1. 문제의 해결을 했습니다.
2. 문제 해결은 그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내야만 했습니다.
4. 우리는 팀에서의 협력으로 인해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나열한 문장에서 ‘의’를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또한, ‘의’를 빼는 대신 문장을 조금 다듬어 다양한 표현을 담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1.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2. 문제 해결은 그다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내야만 했습니다.
4. 우리 팀은 팀 협력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를 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라면 중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적’이나 ‘의’를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습관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귀찮아서일 것이다. 우리는 문장을 만들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다. 습관적으로 편한 길을 택하면서 쓰고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들’을 살펴보자. 의존 명사 ‘들’은 한자어로는 ‘等’에 해당한다. 사전에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다. 번역문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로 많이 사용한다. 예전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들’을 많이 써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글을 쓰는 사람은 ‘재봉틀 원고’라고 부르기도 했다. ‘들들들’만 눈에 띄어 마치 재봉틀로 바느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였다. 그만큼 우리말 문장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은 조금만 써도 문장을 어색하게 만든다.

1. 많은 관광지를 둘러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2. 이 일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모두 소중한 의미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에서 이런 문장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 번역문을 많이 접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원문에서 복수형으로 쓰인 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 한글 문장에도 ‘들’을 붙이는 것이다. 여기에 익숙한 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복수형 ‘들’을 쓰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쓴 버릇은 당연히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1. 많은 관광지를 둘러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2. 이런 몇 가지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당연하게 느꼈던 것이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고친 문장이 훨씬 낫지 않은가. 더군다나 관형사 ‘많은’으로 수식되는 명사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을 붙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일들을’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런 몇 가지’라는 복수형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앞에서 ‘일’이라는 부분이 복수니 호응이 되는 ‘느꼈던 것’과 ‘소중한 의미’도 복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의존 명사 ‘것’은 어떠한가. 국어사전에서는 ‘것’을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 ‘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각각 ‘입을 것, 좋은 것’, ‘못된 것, 자란 것’, ‘내 것, 네 것’처럼 쓸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의 용례를 변형에서 쓸 때이다.

제가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본인이 살아 있다는 현상을 추상적으로 이르기 위해 ‘것’을 붙인 게 아니라, 명사절로 만들어 그럴듯한 주어로 보이게 하려고 붙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에 대한’이 쓸데없이 들어가 버렸다. 물론 많은 글 중에서 자소서와 논술을 비교해보면 자소서에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 대부분 이 책처럼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할 때 ‘것’이 많이 쓰인다. ‘것’은 어떤 현상을 추상적으로 이르게 유도하는 것이니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쓰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에서부터 상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문장을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읽다 보면 리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쓸 수 없다는 데 있다. 한 번 정도라면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 늘 이렇게 쓴다면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것’은 중독성이 강하다. 심지어 ‘것’에서 시작해서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자소서는 엉덩이가 쓴다는 말이 있다. 오래 앉아서 자신의 글을 보고 집중해야 한 항목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습관’이다. 글은 습관이다. 쓰면 쓸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글을 쓰는 능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왜 자소서를 쓸 때마다 힘들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취업 시즌이 오면 20~30 개의 자소서를 쓰면서 글쓰기 실력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내 곧 취업

시즌이 끝나면 쓸 일이 없어지니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소서 한 항목이라도 매주 써보는 것이 좋다. 이것이 어렵다면 무엇인가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면 반드시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마지막 미션! 글자 수를 줄여라!

아마 자소서를 쓸 때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글자 수일 것이다. 글자 수를 맞추는 작업은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자소서를 쓸 때 머릿속에 글자 수를 넣고 쓰게 되면 절대 좋은 글, 세련된 글이 나올 수가 없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소서를 쓸 때 절대 글자 수를 머릿속에 넣고 글을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글자 수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글을 쓸 때 우리는 ‘일필휘지’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자. 글을 쓸 때 과연 한 번에 써진 글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작가들도 고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는데 글쓰기 초보가 한 번에 글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를 떠올려보자. 일단 항목을 분석하면서 노트북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수십 분, 그리고 노트를 꺼내 어떤 소재를 적을 것인지에 대한 나열을 하루에서 이틀, 마지막에 접수 시간이 다가오면 그제야 부리나케 쓰고 문장을 줄일 때 한 문장, 한 문단 전체를 지워버리고 접수하게 된다. 이래서야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글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는 동안 글이 다듬어지고 쓸데없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글의 경제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다. 물론 글의 경제성에 맞춰 쓰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글은 속으로 읽으면서 쓰기 때문에 구어체로 쓰기 쉽다. 구어체로 쓰다 보면 조사, 형용사, 서술어 등이 얽혀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 한 항목을 수십 번 읽고 읽어 고쳐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의사소통능력] 자신이 속했던 조직(학교, 회사, 동아리 등) 안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800byte 이내)

컨벤션 회사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제 8 회 동아시아 댐 기술교류 회의를 기획 과정 중 예산 부족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논문집과 프로그램 북의 자체 제작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했지만, 대리님과 과장님이 그건 불가능하다며 반대하셨습니다. 근거 있게 설득하기 위해 몇 년간의 논문집들을 검토하고, 인터넷으로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들을 수집하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논문집의 디자인들은 모두 기본적인 틀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들과 수집한 디자인과 논문집을 비교하여 보여주며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근을 감수한다면 기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저의 설득으로 대리님은 논문집과 프로그램 북 제작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대리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수십 번의 수정을 반복한 결과 자체 제작 컨퍼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고, 저의 태도에 상사분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정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의 자소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로 학생들이 가장 애를 먹는 자소서 항목이다. 위의 자소서를 보면 몇 번을 고친 티가 나긴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단 첫 문장부터 줄여보자.

컨벤션 회사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제 8 회 동아시아 댐 기술교류 회의를 기획 과정 중 예산 부족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컨벤션 회사 인턴 당시, ‘동아시아 댐 기술교류회의’ 기획 과정 중 예산 절감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컨벤션 회사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를 “컨벤션 회사 인턴 당시”라는 말로 고치면 약 8 바이트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글자씩 줄여나가는 작업이 바로 자소서의 글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뒤 문장도 다시 줄여보자.

논문집과 프로그램 북의 자체 제작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했지만, 대리님과 과장님이 그건 불가능하다며 반대하셨습니다.
→ 회의 중, 저는 논문집과 프로그램 북의 자체 제작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원들은 논문집과 프로그램 북은 외주에 맡기고 투어 일정을 줄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의 문장은 더 길게 만들어졌다. 이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문장이 너무 길었고, 대리와 과장이 왜 반대를 했는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본인의 스토리에 타당성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인 “근거 있게 설득하기 위해”라는 말도 읽는 사람은 왜 이것이 근거 있게 설득하는 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더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글이 늘어나니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를 다시 상기하면서 고친 자소서를 보도록 하자.

컨벤션 회사 인턴 당시, ‘동아시아 댐 기술교류회’ 기획 과정 중 예산 절감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중, 저는 논문집과 프로그램 북의 자체 제작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원들은 논문집과 프로그램 북은 외주에 맡기고 투어 일정을 줄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진행 전체를 생각해 중요한 프로그램인 투어 일정을 줄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설득을 위해 수백 권의 논문집을 검토하고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기한도 맞출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저의 설득으로 논문집과 프로그램 북 제작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산이 절감 되었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진행내용을 이해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 선택한 다음, 근거자료의 제시를 통해 설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소서가 완전하게 고친 자소서이다. 실제로 고칠 때는 수십 번을 고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조사, 서술어, 주어 등의 호응이 맞는지 처음 볼 때는 모르지만, 고치면 고칠수록 본인의 문장 실력도 점점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일정을 줄이자는 의견 뒤에 원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라고 했지만, 고친 글에서 “진행 전체를 생각해 중요한 프로그램인 투어 일정을 줄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 뒤에도 쓸데없는 문장이 없어졌다. “설득을 위해”라는 말로 앞의 말을 줄였고, 그 뒤 행동이 나오지만 빠진 내용이 전혀 없다. 이래도 이해를 못 하겠다면 다음 자소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본인을 소개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을 통해 저의 사고를 확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모모’의 성장소설과도 같지만, 모모가 자라고 있는 공간은 마치 유대인들의 ‘Getto의 공간’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설은 외부의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공간과도 같은 곳에서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이야기들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섞여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 내에서 모모가 사는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비정상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규정 짓고 있습니

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존엄사를 이야기하는 로자 아줌마, 성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로라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하는 것을 고집어내는 이 소설은 저의 사고를 흔들어 놓기 충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이 소설은 아마 가장 필요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회적 공감 능력'과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사회적 공감 능력으로부터 도래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제조업의 과잉이 형성되면서 금융업은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금융업에서 거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창의력'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소비자의 만족과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금융상품을 넘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창의력'이란 '나에게 금지된 것을 금지시켜라'라는 68혁명의 슬로건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검열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위해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관념에 갇혀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인지를 항상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낯설게 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자소서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기가 힘들다.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을 많이 읽고 인문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글을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쓰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는 자소서의 해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고를 확장했다. 이 책이 그 시작이 되었다.
2. 소설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3.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금융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4. 창의력을 이야기하면서 68혁명의 슬로건인 '금지된 것을 금지시켜라'라는 말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것부터 쓰는 것이 좋을까? 사실 책 한 권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설정이다. 그리고 굳이 자소서를 쓰는데 소설에 대한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적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2번 항목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과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항목에서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이 될 수 있다. 결국, 남는 것은 ‘창의력’이다. 실제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의력’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4 번 항목을 맨 앞으로 구성하고 구성을 조금 바꿔 다시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자소서가 나온다.

저는 ‘창의력’이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 왔습니다. 사회에서는 4 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였고,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의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길러지는지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해 ‘창의력’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조업 시장이 과잉되면서 금융업은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고민을 해결해준 소설이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설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사랑하자’라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매일 변화하는 세상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매일 새로운 삶과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저는 프랑스 ‘68 혁명’의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라는 슬로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관념에 갇혀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인지를 항상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설게 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자소서를 보면 주저리주저리 쓴 내용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력’이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에서 고민한 흔적들과 소설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본인에 대한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쓴 글을 해체라는 작업을 통해 재구성하면 새로운 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사실 새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새롭게 써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 마땅히 글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소서를 강의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자소서는 어떻게 채점을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라는 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준은 없다. 잘 쓴 자소서는 누가 봐도 잘 쓴 자소서이고, 못 쓴 자소서는 누가 봐도 못 썼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명확하게 글쓴이가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항과 읽는 사람이 조건에 맞게 썼는지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선다형과 논술형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선다형이 더 객관적이고, 논술형이 더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선다형이 훨씬 객관적으로 점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 오류가 있다.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평가는 1 등부터 꼴찌까지 분명하게 나오는 반면,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다. 선다형은 동점자가 나올 수 있지만, 논술형은 그렇지 않다. 논술형은 어떤 기준이 없이 잘 쓴 글 하나가 기준이 되어 그 글보다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소서가 가져다주는 이 귀찮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자소서를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를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소서는 제약된 글쓰기이다.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이다. 항목이 있다면 항목에 제시된 조건을 따르며 글자 수에 대한 조건도 맞춰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글쓰기 중 하나이다. 필자는 진정으로 자소서는 소설이나 에세이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어떤 틀에 맞춰 쓰면 무조건 통과한다는 자소서는 사기이다. 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쓴 자소서를 열 번, 백 번 읽어 고치는 일이 절대 귀찮은 일이 아님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0. 자소서 마지막 화룡점정! 인문학!

- 자소서를 쓰는데 인문학이 꼭 필요한가?

현재는 어디쯤 와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인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와 있는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많은 이슈를 장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4차 산업혁명은 초입에 들어서지도 못한 것이 분명하다. AI가 난립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아는 AI는 알파고에 불과하니 말이다. 정확하게는 3차 산업혁명의 끝에 서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자소서를 이야기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글을 쓰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혁명의 끝에 인간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단연코 글쓰기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학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이 보고 사고한 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작금에 필요한 능력일 것이다. 사고를 더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진단하는 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생산해 낼 수 없다면 인문학의 도구인 문학, 철학, 역사는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지금 인터넷 창만 열어도 수많은 텍스트가 쏟아지고 있다. 생산에 재생산을 거듭하며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해 쓰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자소서 항목에서도 인문학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역사 관련 항목이 여기에 들어간다.

〈표 13.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역사 관련 항목〉

항목	항목별 내용	비고
한국사	본인이 판단하기에 한국사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세부항목	1)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지 설명하고, 어느 시대의 어떤 인물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2) 그 인물의 당시 지위와 처한 상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 그 인물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시 발생한 장애 요인이나 극복과정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4) 그 인물의 리더십이 당시 사회나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5) 그 인물의 리더십 중 우리 공사에 적용하여 공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리더십

이 항목은 단순히 역사만 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통사를 외운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역사의식이 생겨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한국사에 리더십까지 더해졌으니 본인의 취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에서 이미 본인의 가치관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회학에서는 리더십을 ‘민주적 리더십’, ‘카리스마형 리더십’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가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지 설명하고, 어느 시대의 어떤 인물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리더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지를 고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민사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보편적인 생각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바로 조선 시대의 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위의 글은 초안이다. 이때는 어떤 인물을 먼저 설정하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더라는 자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 그것에서부터 인물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 항목을 계속 보자.

2) 그 인물의 당시 지위와 처한 상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정조는 조선의 22 대 왕으로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여이고 영조라는 커다란 거목의 뒤를 이은 임금입니다. 정조가 왕이 될 무렵 노론과 소론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그 소용돌이 안에서 탕평의 뒤를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3) 그 인물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시 발생한 장애 요인이나 극복과정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화성을 지으며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격쟁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었기에 주위 신료들에 반대가 있었지만 격쟁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잠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고, 각종 신료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향한 걸음을 아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는 이상향을 세우고 한 걸음을 실천하는 군주라고 생각합니다.

4) 그 인물의 리더십이 당시 사회나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백성의 말을 듣는 군주였기 때문에 세상은 태평성대에 올랐습니다. 실제 백성이 필요한 정책을 썼고, 그들에 고충을 들어주면서 사회는 점점 백성이 편안하고 신료들이 고생하는 상태, 맹자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이상향의 사회로 만들어져가고 있었습니다.

5) 그 인물의 리더십 중 우리 공사에 적용하여 공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에 냉·난방을 관리하며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미래형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빅데이터의 수집, 스마트그리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안치고는 대단히 그럴듯하게 쓴 글이다. 어떠한 꾸밈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조목조목하고 있다. 물론 글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처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인문학은 아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확장, 더 나아가 생각을 글로 써 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자소서라는 한 장르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사고와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을 외우지 마라. 인문학에 나오는 모든 과목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수단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철학자를 공부하면 철학자를 만나서 싸우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되묻는 작업이 바로 인문학이다. 물론 이 작업을 데카르트는 18 세기에 이미 선행하였지만, 데카르트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를 통해 의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 사고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일 것이다.

단순히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사고를 하고, 사고를 많이 한 사람은 사고를 토대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만 있다고 자소서를 잘 쓴다면 고생한 사람이 자소서를 잘 쓴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글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 무기를 갈고 닦아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보자. 자소서는 그 초입에 불과하다.

해커스잡 수강생 수강 후기

취준생들에게 직접 검증받은 강의!
취준생들의 선택만큼 객관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수강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해커스잡 취업학원 수강생 수강후기 중

금융공기업 논술 기초+실전반 수업은 전반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업의 절반은 학생들의 의견개진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과 1:1로 피드백을 통해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문제를 읽는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금융 논술대비반인 만큼 실제로 논술 대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실제 시험에서 수강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기초반 보강 후에 코트라 논술시험을 봤었는데, 선생님께서 첫날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주신 미국금리인상 문제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냥 다뤄주신 정도가 아니라, 미국금리인상 배경+접목해야 할 사회학적 이론+이후 세계경제 변화와 정부의 대응책까지 정말 세세하게 다뤄주셔서 실제 시험에서도 막힘없이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고 답이 바로 떠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전 필기 집중완성반 김** 수강후기중

김소원 선생님의 수리 추론 강의를 듣고, 정말 실제 시험에서도 계산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물 농도라던지, 일을 여러명이 나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여럿 나왔는데 모두 빠른시간에 풀이 시간을 벌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항상 넘기거나, 시간을 잡아먹었던 것은 전개도 문제였습니다. 항상 머리속에서 상상하지만 뒤죽박죽 섞이는 바람에 시간은 시간대로 사용하고 문제도 놓쳤는데, 복지훈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연습해서 갔더니 전개도 문제가 정말 쉽게 다가왔습니다. 최수지 선생님이 알려주신대로 단어추론 문제를 많이 접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를 보니 바로 답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단어 추론에서 가장 시간을 번게 아닌가 싶네요



‘최고의 취업강의’1위 해커스잡

네이버 카페 [독취사] 회원 대상 '최고의 취업강의' 설문조사(310명,2016.6.8~6.10)

어학교육그룹 1위 해커스의 취업교육 브랜드!

HACKERSJOB

[해커스어학원] 2014포춘코리아 고객행복브랜드대상 교육브랜드. 어학원부문

공기업 취업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취업의 처음과 끝은 해커스잡과 함께하세요!



자소서



인적성/NCS



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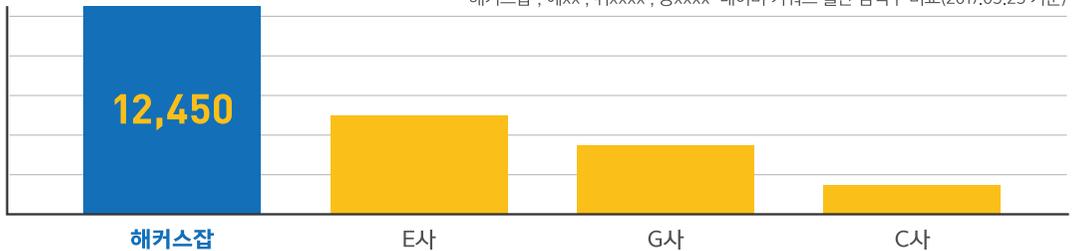
전공필기



면접

취준생이 선택한 1위의 책임감!
취준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커스잡!

"해커스잡","에xx","취xxxx","공xxxx" 네이버 키워드 월간 검색수 비교(2017.05.25 기준)



한 명이 전 영역을 알려주는 강의와 비교거부!
영역별, 전형별 전문 선생님의 직강!



자소서 / 면접
김태형



NCS / 자소서
윤종혁



직무적성 / NCS
김소원



직무적성
복지훈



직무적성
최수지



자소서 / 면접
조은희

지금 바로 을 검색해보세요.

www.HackersJOB.com